

청년생활

8

1963



공화국 창건 15 주년과 민청 제 5 차 대회를 높은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치차 가공을 전문화하기 위한 기술 토론을 하고 있는 기양뜨락또르 공장 청년 기관 직장 정 근수 청년 천리마 작업반원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8 (167) 1963

차 례

표지 1 면, 《고기 잡이》 최 병식 그림

혁명적 의리

하 양 천

혁명적 의리—이것은 인류의 자유와 해방,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것은 자기 계급, 자기 조국과 인민, 나아가서는 전 세계 무산 계급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고상한 도덕적 규범의 하나이다. 다른 모든 도덕적 규범이 그러한 것처럼 혁명적 의리도 유구한 력사적 과정을 걸쳐서 형성 발전되게 되였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정의에 대한 지조는 그 어떤 법률적 강제나 물질적 리해관계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두 적대되는 계급으로 분렬되여 착취 계급의 부정의가 지배하는 그런 조건에서도 인민은 정의에 대한 지조 즉 의리를 생활의 신조로 삼아 왔으며 그것으로써 온갖 부정의를 반대하는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사람들의 의식이 아직 사회 발전의 객관적 진리와 결부되지 못하고 지배 계급의 계급적 리익에 복무하는 지배적 의식 형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조건 하에서는 의리도 일정한 제한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오직 그것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진리인 맑스-레닌주의와 밀접히 결합됨으로써만 진실로 혁명적인 의리로 되게 되였으며 그의 사회적 의의도 더 크게 되였다.

우리 조선 인민은 세계에서도 가장 의리에 밝은 인민이며 의리를 소중히 여겨 오는 인민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원래 례절이 밝고 정의감이 강하고 수천년의 력사 발전 과정에서 언제나 단일한 민족, 단일한 국가를 가지고 살아 왔으며 내외의 원쑤들과의 무수한 투쟁에서 단련된 인민이라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우리 조국 력사에는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일신 상 리해를 돌보지 않으며 한번 먹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끝끝내 의리를 지킨 애국자들이 그 얼마나 많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일을 사랑하고 불의와 악행에 항거한 정의의 인사들이 그 얼마나 많았던가!

기원 4 세기 말 신라 시대의 박 제상은 외국에 인질로 가 있는 왕자를 찾아오기 위하여 〈만약 어렵고 쉬운 일을 가린 다음에 실험한다면 이는 충성이 없는 것이요, 죽고 사는 것을 따진 다음에 행동한다면 이는 비겁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기어코 왕자를 찾아 나라의 치욕을 씻고 왕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집을 떠나게 되였다.

정의감에 불타는 그는 사랑하는 고향 산천과 부모 처자를 앞에 놓고 만일 불행히도 뜻을 이루지 못 하는 경우에는

만리 타국의 의로운 혼이 될 것을 각오하고 일본을 향해 륙포를 떠났다. 그 때 그의 심정은 단 하나 불타는 정의감과 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가득찼다. 그가 이미 일본으로 가는 배 우에 앉았을 때 이 사연을 알게 된 그의 안해가 뒤미처 따라 와 안타까이 남편을 불렀다.

그에게는 물론 안해에 대한 의리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나라에 대한 더 큰 의리로 하여 다만 손을 흔들어 안해를 위로하였을 뿐이였다.

일본 땅에 당도한 후 그는 천신 만고하면서 왕자를 데리고 빠져 나올 길을 탐구하였다. 그러나 심한 감시로 하여 도저히 같이 빠져 나올 수는 없었다. 마침내 그는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적들의 감시의 눈초리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면서 그 틈을 타서 왕자만을 본국으로 빼돌리는 데 성공하였다.

얼마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일본 왕은 격노하여 그를 잡아 가두고 혹독하게 문초하기 시작하였다.

왜왕이 《너는 어째서 왕자를 몰래 신라로 보냈느냐?》고 하였을 때 그는 《나는 신라의 신하요, 왜국의 신하가 아니다. 나는 지금 우리 나라 왕의 뜻을 이루려고 했을 뿐이다.》라고 태연하게 말하였다. 박 제상이 비범한 인물임을 알고 왜왕은 왕자 대신 그를 리용해 보려는 간계로 《만약 네가 지금이라도 우리의 신하라고 말한다면 많은 상과 높은 벼슬을 주리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추상 같은 얼굴로 《내 차라리 신라의 개나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는 될 수 없다. 내 차라리 신라의 매를 맞을지언정 일본의 벼슬과 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웨치면서 장렬한 일생을 마치였다.

박 제상은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의리를 지켰기에 천 여년을 경과한 오늘에 이르도록 그 이름은 우리 인민들 사이에 높은 존경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청 나라 침략자를 반대하는 전쟁에서 통치배들의 반역적 행위를 견결히 규탄하고 조국에 대한 의리를 목숨으로 지킨 오 달제, 홍 한익, 윤 집 등 《삼학사》의 소행이 또한 아름다운 전설인양 전해지고 있다. 1636년 병자 호란 당시 청 나라의 침략 앞에서 겁을 먹고 적과의 화친을 주장한 통치 계급은 자기들의 목숨으로 적과의 항전을 결의하여 나선 《삼학사》를 체포하여 적진으로 보내면서 적들의 요구를 거절하여 나선 전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였다. 《삼학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흉악한 적장 룡골대는 오 달제의 결박을 풀어 놓고 《내 전일에 듣건대 당신들이 청 나라를 반대하는 주모자 같지 않은데 청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을 다 알려 주면 모두 용서하여 주겠소.》하고 그들의 변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오 달제는 《우리 나라가 이미 조사하여 우리들을 보냈은즉 어찌 또 다른 사람이 있겠는가, 오직 죽음이 있음을 알 뿐이다. 어찌 죽음이 두려워 죄 없는 사람을 불어 넣겠는가》라고 단호한 립장을 취하였다.

흉계를 달성하지 못 한 적들은 마침내 그들을 심양으로 끌고 갔으며 죽음으로 위협도 하고 고문도 하고 《처자를 데려다 그 곳에서 살겠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다》고 유인도 하여 보았다.

《삼학사》도 자기의 부모 처자를 사랑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하나 정의에 대한 다함 없는 신조, 나라와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을 참고 이겨 냈으며 적들의 어떤 강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다.

그 때 오 달제는 불과 29 세의 청년이였다. 우리가 오늘까지도 《삼학사》의 소행을 높이 찬양하며 구가하게 되는 것은 불의의 부귀와 공명을 단연히 물

리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친 때문인 것이다.

자기 목숨으로써 나라를 위하여 의리를 지킨 인사들이 어찌 이 뿐이랴. 임진왜란 당시 선비들과 중들이 힘을 합하여 외적들과 항전하다가 장렬하게 희생된 금산의 700 명 의사, 나라와 아버지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소녀의 몸으로 남복을 하고 적진에 들어 가 용감히 싸우다가 희생된 설 죽화 등 그 수를 하나하나 들기 힘들다.

우리 선조들이 자기 생활에서 의리를 지킨 아름다운 소행은 지나 온 사회 생활의 이모 저모에서 무수히 나타났다.

춘향전이나 심청전에서 나오는 렬녀나 효녀는 가상적 인물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이 매일 만나 보는 평범한 인물들 속에서 예로부터 의리에 밝은 조선 녀성들의 고결한 품성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고려 가요 《서경 별곡》에서는 남녀 관계에서 아름다운 품성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리이까
천년을 외로이 살아 간들
신의야 끊어지리이까"

이 얼마나 진지하고 견결하고 정열적인 사랑인가! 이것은 사랑하던 사람을 큰 리유 없이 헌신짝처럼 내 버리는 무절조한 현상에 대한 힘 있는 비판이다.

여보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인들 무거우랴

늙기도 서러워라커든
짐조차 지실가.

오랜 옛날부터 전하여 내려 오는 이 노래에 담긴 웃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의리를 지키려는 우리 나라 평범한 젊은이들의 소박하고 성실하고 구김새 없는 심정이 또한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아름다운 심정, 높은 의리감을 지닌 인민이기에 우리 인민은 의리가 밝은 인민이라 불리우며 우리 나라는 오랜 옛날부터 《동방 례의의 나라》로 널리 알려져 내려 오는 것이다.

물론 봉건 시대의 충이니, 효니, 정조니 하는 그 내용에는 계급적 신분 관계로부터 생기는 제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의리라는 개념 속에서 일정한 제한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러한 제한성은 인간 사회에서 착취 관계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로동 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극복되였으며 10월 사회주의 혁명 이 후 사회주의가 수립된 나라들에서는 착취가 근절된 새로운 인간 관계가 형성되였다. 사람들 간에 서로 지켜야 할 의리는 벌써 과거의 제한성이 극복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로 발전된 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피어린 투쟁인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새로운 페지를 열어 놓은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 투쟁이다. 빨찌산들의 고매한 혁명 정신이 깃들어 있는 투쟁 실기인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의 산 교과서이다.

한 홉의 미시'가루를 열 말의 량식처럼 나눈 항일 빨찌산들의 고상한 혁명적 동지애, 중상을 입은 중국의 한 어린 대원 비로까데를 치료할 책임을 지고 짐승들도 기여 들기 주저하는 천고의 밀림 돈화의 수림 속에서 77 일 간 한 알의 식량도 없이 그를 구원해 낸 김 명화 어머니의 고상한 국제주의적 동지애 등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기적적인 실화들을 접하게 된다.

항일 빨찌산들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피흘려 싸웠으며 또한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자》는 구호를 들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시종 일관 충실하였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기간 항미 원조의 성스러운 기'발을 들고 조선 전선에 참가한 중국 인민 지원군의 피의 원조는 혁명적 의리에 밝은 중국 인민의 정의의 행동이다. 중국 인민은 4 차에 걸친 중국 혁명 기간 조선 동지들이 흘린 피를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의 전우들을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원조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라 성교와 박 재근을 비롯한 조중 우의가 낳은 아름다운 꽃송이들은 국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의리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 나라의 로동 계급과 전체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되여 형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혁명적 의리를 굳게 지키며 현대 수정주의를 견결히 반대하며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발전》이라는 가면 밑에서 실은 맑스-레닌주의의 진수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와 투쟁할 대신에 오히려 미제를 미화하며 로동 계급과 인민들의 혁명 의식을 제고할 대신에 도리여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려고 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고상한 의리도 다 잊어 버리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약화시키며 심지어 파괴 행동까지 로골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적 립장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며 단결을 방해하는 모든 불의의 행동에 대하여 견결히 반대하여 투쟁한다. 동지 간에 의리를 저버리고 원쑤를 기쁘게 하며 벗들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원쑤가 발악할수록, 혁명 정세가 간고하면 간고할수록 우리 인민의 고귀한 도덕적 품성의 하나인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더욱 발양하며 당과 혁명에 더욱 충실하며 동지 호상 간의 존중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더욱 혁명적 의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

청년들은 새 세대의 주인공들이다.

생산 직장, 교육 문화 기관, 모든 부문에서 청년들이 앞장을 서야 하며 현재 국가 기관들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로간부를 대신하여 앞으로 닥쳐 오는 더 큰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들 속에서는 부분적 현상이기는 하나 당'적, 국가적 과업을 실천함에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 하고 자기가 할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나 남녀 관계에서 건실치 못 한 현상이나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 약속과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나 부정적인 것과 잘못 된 것과 융화 묵과하며 견결히 투쟁하지 못 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모두 혁명적 의리를 모르는데서 발로되는 것이며 시급히 시정하여야 한다.

우리의 생활을 더욱 알뜰히 꾸리며 혁명적 전취물을 적의 침해로부터 보위하며 미국 승냥이들을 내쫓고 우리 나라를 더욱 아름다운 사회주의 락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전체 인민들 속에서 특히 청년들 속에서 공산주의 도덕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적 의리를 더욱 굳게 지켜야 한다.

근면하고 단결되고 의리에 밝은 우리의 앞길에는 더욱 보람찬 행복이 닥쳐오리라!



1930 년대의 공청원들!
그들의 심장은 언제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직성으로 타 번지고 있었다.
그들은 조국의 광복과 혁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아낌 없이 바쳐 싸웠다.

나는 공청원이다

눈보라! 동북의 산야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천고의 밀림과 첩첩 단애…빨찌산 대오가 나아가는 길은 험난하였다.

1937년 겨울 공청원 김 택만이 속한 부대는 왜놈들이 《난공 불락의 요새》라고 떠벌리던 휘남현성을 공격하여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 통화 즙안 접경에서 설을 쉰 후 김 일성 원수께서 계시는 사령부를 찾아 몽강 쪽으로 행군하고 있었다.

설한풍을 뚫고 나가는 고난의 행군에 주림과 추위는 사정 없이 밀려 들었다. 더구나 택만이는 삼차자령에서 불의에 조우한 적 500여 명을 소탕하는 전투에서 한쪽 팔을 부상당하고 심한 출혈을 겪고 난 뒤였었다.

허지만 항상 혁명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과 사령관 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직성으로 심장을 불태운 택만이는 자기의 고통을 숨겨 가면서 가렬한 전투에서 로획한 기관총을 메고 부대의 앞장에 서서 걸음을 옮겼다.

(…사령관 동지께서는 얼마나 기다리실가)

불현듯 그의 눈에는 눈보라 속 저 멀리 몽강의 밀영에서 대원들이 도착할 것을 고대하고 계실 사령관 동지의 영상이 우렷이 떠올랐다.

8세 때 연길현 봉림동에서 아동단에 입단한 자기가 그 후 소년 중대를 걸쳐 위대한 투쟁 대오에서 빨찌산 대원으로 성장하기까지에는 김 일성 원수의 얼마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던 것인가.

소년 중대에서 첫 전투에 참가하던 때 일이 생각키웠다. 전투 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퇴각하는 적을 혼자서 추격하다가 부대의 기동에 지장을 주었을 때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원쑤를 증오하는 마음은 좋으나 혁명적 규률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간곡하게 타일러 주시던 일…

또한 부대가 적들의 《동기 토벌 작전》을 분쇄하면서 무송 단두산 너머로 행군하던 당시 휴식 시간을 리용하여 부근 산간 지대의 농민들과 벌목 로동자들 속으로 삐라 공작을 보내신 전사들을 불무지 옆에서 밤을 지새며 기다리시던 그 이…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기며 택만이는 행군하였다.

1938년 1월 23일—그들이 룡강 산맥을 넘어 류두거우 부락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였다. 감시 초소에서 적정을 알리는 급한 련락이 왔다.

중대장을 뒤따라 높은 장대에 올라선 택만이는 맞은 쪽 산'기슭 평퍼짐한 곳 여기 저기에 적들의 불무지가 피여 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 어림짐작으로도 6~7천명은 실히 될 것만 같았다.

곧 파견된 정찰은 약 2천 명 가량의 왜놈들을 내 놓고는 모두가 적들에게 강제로 끌려나와 밤새껏 위장포를 쓰고 불무지를 지키고 있는 조선 농민들이라는 것을 보고하였다. 원쑤들은 조선 사람들을 제놈들의 총알 받이로 내몰았던 것이다. 택만이의 심장은 격분으로 끓어 올랐다. 지휘원들과 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작전을 세우는 긴급 회의에서 택만이는 불의 습격으로 적들을 쳐부시는 한편 어둠을 리용하여 제놈들끼리 맞불질하도록 하자는 것을 제의하였다. 지휘관들과 대원들은 택만이의 토론을 한결 같이 지지하였다.

택만이는 부상 당한 몸으로 숙영지에 남으라는 동지들의 간곡한 권유를 무릅쓰고 기어이 습격조에 따라 나섰다.

박 성철, 윤 태홍 동지들의 지휘 밑에 습격조는 바람처럼 적진에 재여 들었다. 적 보초를 감쪽 같이 제낀 기습조원들은 한 불무지 옆에서 나무를 패는 조선 농민을 만나 그들에게 빠져 나갈 방향을 대 주고 다급히 피하도록 타일렀다.

그리고 빨찌산들은 적들의 불무지에 통쾌한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웠다. 택만이는 경기를 으스러지게 틀어 잡고 계속 전진하면서 원쑤들을 무리로 쓰러 눕혔다. 원쑤들의 비명이 악마구리 끓듯 하였다.

적 지휘부를 감쪽 같이 소탕하고 놈들의 중심을 뚫고 습격조원들이 뒤'산턱에 올라 설 때까지 좌우로 두 동강이 난 왜놈 토벌대는 서로 맞불질하며 주검 우에 주검을 덧쌓고 있었다. 이 전투에서 그들은 적 한 개 련대 이상의 대부대를 섬멸하고 동틀무렵에 서패자 수림 지대까지 행군하였다.

그런데 이 때 부대에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다.

남만에서부터 부상 당한 몸으로 대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오던 사 장(중국인)은 이 이상 더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게 되였다. 부대가 사령부에 도착해야 할 날'자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사정은 매우 긴박하게 되였다. 이 때에도 언제나 혁명 임무에 충직한 택만은 자기가 남아서 그를 호위하여 간호할터이니 부대를 계속 전진시킬 것을 간절히 제기했다.

부대는 조성된 형편에서 택만이와 몇몇 대원을 남기고 떠나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전투에서 사선을 함께 넘어 온 전우들과 헤여지면서 택만은 《사령관 동지를 뵈옵거던 이 택만이도 목숨이 있는 한 혁명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곧 대오를 뒤따라 가겠다고 전해 주오》라고 하면서 굳게 손'길을 싸쥐였다.

부대와 떨어져 두 달 동안, 자기도 성하지 않은 몸으로 밀림 속에 남은 택만은 전우들이 배낭을 털어서 모아 준 약간의 식량마저 떨어지자 골짜기와 바위 틈새를 뒤지며 눈 속에서 나물도 캐고 얼음을 까고 산천어도 잡아서 환자를 극진히 간호하며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어스름이 숲 속에 기여 들 무렵이였다. 느닷 없이 적 토벌대 1 개 대대가 밀영을 은밀히 포위하였다. 위협은 각일각 박두하였다.

택만이는 비상한 결심을 다졌다.

《나는 공청원이다. 심장이 고동치는 한 끝까지 원쑤를 쓰러 눕히고 나에게 맡겨진 혁명 임무를 완수하리라!》

환자를 업어다 잔대 나무 밑에 깊이 숨겨 놓았다. 그리고는 나머지 전우들과 함께 원쑤들에게 복수의 명중탄을 퍼부었다. 저녁 해가 수풀 넘에 깔앉을 때까지 가렬처절한 전투는 계속되였다. 몇 명의 전우들도 희생되고 탄알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왼팔을 부상 당한 택만은 이제는 바른 팔마저 부상 당하여 더는 무기를 잡을 수 없게 되였다.

택만이는 자기에게 다가 오는 최후를 조용히 각오하였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였다. 그는 이를 지그시 사려물고 적을 노려 보면서 수류탄을 묶었다. 이제 몇 분 후이면 밀려 드는 개무리 속에서 택만이가 터뜨린 수류탄은 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길 것이다.

택만이는 생각하였다. 자기의 생애가 너무도 짧게 생각되였다. 그러나 자기의 청춘은 혁명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았고 값 높게 흘러 갔었다. 자기와 전우들이 흘린 피는 해방된 조국, 번영하는 앞날의 조국 땅 우에 붉은 꽃떨기로 피여 나리라!

그는 사령관 동지가 계시는 북쪽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힘차게 나붓기는 붉은 기'발이 보이고 그 기'발 밑으로 전진하는 전우들의 씩씩한 대렬이 나타났다. 자애로운 사령관 동지의 영상을 그리며 택만이는 자세를 바로하였다.

《사령관 동지! 당신의 혁명 전사는 끝까지 혁명 임무에 충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수류탄 묶음을 껴안고 원쑤들 속으로 다가 가며 소리 높이 웨쳤다.

《혁명 승리 만세! 공산당 만세!》



택만이는 원쑤들의 무리 속에서 혁명에 대한 불같은 충직성으로 끓는 자기 심장과 함께 수류탄을 터뜨렸다.

굉음과 함께 수십명의 원쑤들이 쓰러졌다. 그렇듯 혁명 임무에 충직하던 한 혁명 전사는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 임무를 완수하고 짧고도 보람찬 생애를 빛나게 끝마치였다.

비록 그는 혁명 대오에서 떠나 갔어도 그의 불멸의 넋은 우리 시대 청년들의 심장에 맥맥히 살아 있으며 우리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 속에 영원히 꽃피여 있을 것이다.



미제 원쑤들은 크게 오산하였다.

침략자들은 영웅적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심장마다에 불'길처럼 타번지는 열렬한 조국애와 당과 수령에 대한 다함 없는 충성의 깊이만은 결코 재일 수 없었다.

우리는 조선 청년이다

지척에 파아란 동해 바다가 출렁이고 포항 시가가 손'금처럼 내려다 보이는 384.6 고지…

가렬한 조국 해방 전쟁 1 계단에서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들이 물먹은 담'벽처럼 쓰러지며 꽁지 빠지게 남으로 패주하다가 마지막 발악으로 뻗치고 선 포항 계선은 적 아 간에 가장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진 싸움터였다.

놈들은 동해 전선에서 포항 계선을 내놓는 날이면 숨 돌릴 새 없이 쭉 밀려 내려 가 현해탄에 쳐박힐 판국인지라 여간만 아니게 집요하게 발악하였다.

바빠 맞은 적들은 384.6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 인민 군대의 점령 계선을 북으로 떠밀려고 바다와 하늘, 지상에서 각종 포화력과 유생력량을 투입하여 필사적인 반공격으로 나오군 하였다.

아군이 384.6 고지를 계속 견지하며 포항을 해방하는 데 있어서 무명 고지는 중요한 전술적 요충이였다. 때문에 원쑤들은 반공격의 화살을 이 무명 고지에 집중하였다. 적들은 이 고지의 기슭에 1 개 대대의 병력을 배치하고 105 미리 포 사격을 무시로 들이 대군 하였다.

1950년 8월 중순, 이 중요한 무명 고지의 방어 임무를 8 중대 박 현출 분대 용사들이 맡게 되였다.

동해가 불붙는 해돋이 무렵, 고지 우에 재계선을 차지한 젊은 용사들은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할 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전사들은 한나절 쏟아지는 소낙비 속에서 전호 작업을 계속하며 원쑤들을 일격에 소멸해 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었다.

날이 저물자 바로 고지 턱 밑에서 예광탄이 솟아 오르고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적기는 릉선을 핥을듯이 누비면서 폭탄과 기총탄을 우박처럼 퍼부었다. 고지는 사나운 불'길과 몽롱한 연기에 휩싸이고 말았다.

이윽고 적 보병들이 스럼스럼 산병선을 펴고 기여 올라 왔다.

무명 고지는 멋진 반타격전을 앞두고 쥐죽은듯 고요했다. 얼빠진 적병들은 제놈들의 화력에 고지는 완전히 제압된 줄로만 생각하고 뱀뱀이 서서 거만하게 기여 올라 왔다.

분대장의 사격 구령이 전선의 고요를 깨뜨리며 높이 울렸다. 자동총이 불을 뿜고 수류탄이 밤나무 떨듯이 튕겼다.

불시에 일어 나는 굉음에 뒤섞여 죽어 가는 적들이 짐승처럼 울부 짖는 아비규환은 침략자들의 더러운 최후를 고하였다. 무명 고지의 기슭에는 더러운 미제 고용병들의 시체가 너저분한 걸레쪼각처럼 널렸다.

그러나 적들도 만만치는 않았다. 놈들은 어떻게든 이 고지를 탈환하려고 하루에 열 번 스무 번 기여 올랐다.

치렬한 전투의 나날은 흐르고 또 하루가 다가 왔다. 이 날도 스물 세 번 째의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나니 박 현출 분대 용사들에게는 탄알 70 발과 2 개의 수류탄 밖에 남지 않았다. 군부대의 전반적 작전을 위하여 분대원들은 래일 아침까지 이 고지를 지켜야 한다.

최후의 격전을 앞두고 전사들은 비장한 결의를 다지였다.

젊은 분대장은 근엄한 어조로 이야기했다.

《동무들! 우리는 영웅적인 조선 청년입니다. 우리가 이 고지를 지켜 내는가 못 내는가에 따라 포항 해방 여부가 결정되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 고지를 사수합시다.》

리 히욱 동무는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 쥐며 결의하는 것이였다.

《수류탄이 떨어지면 돌멩이로 싸웁시다. 그것마저 없어지면 총창과 총탁, 결사적인 육박전투로 원쑤를 끝까지 소멸합시다. 당과 조국을 위하여 고지에서 한 발'자욱도 물러 서지 말 것을 다시 한 번 맹세합니다.》

전투원들은 짧막하게 말하였으나 그 한 마디에는 어떤 총 포탄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승리에 대한 신심, 드높은 멸적의 기세가 힘있게 울려 왔다.

전사들은 희미하게 달'빛이 스며 드는 전호 속에서 김 일성 장군에게 드리는 맹세문을 쓰고 서명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장군이시여! 우리는 지금 일곱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수령에게 드린 맹세문에 서명하고 난 리 히욱 동무는 무량한 감회에 싸임을 걷잡을 수 없었다.

그의 눈'길엔 로동과 삶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고 헐벗고 굶주리던 어린 시절의 쓰라린 일들이 삼삼히 밟히는 것이였다. 그 어둡고 괴로운 세월에서 어린 소년에게는 배움의 자유도 없었고 압제와 굴욕만이 있을 뿐이였다.

《동무들, 생각해 보게, 우리가 지난 세월 어떻게 살아 왔는가? 그저 지주와 자본가놈들에게 헐뜯기며 살았네.

그러나 해방된 조국은 우리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 주었지, 배움의 자유도, 로동과 휴식의 행복도 안겨 주었단 말이야, 우리는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도 한 번 본때 있게 싸워 보세나…》

이렇게 말하는 리 히욱 동무의 목소리는 자무치는 격정으로 떨렸다.

그러자 한 민청원이 이렇게 말했다.

《난 정말이지 이 번에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본받아 잘 싸울려예요. 그리하여 나두 당원이 될래요.》

《응 그거 참 좋지》



뜨거운 열망이 전호 속을 회오리쳤다.

전선에 날이 새자 적들은 또 기여 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의 불을 세차게 토하던 경기관총도 이젠 탄알이 떨어져 잠잠해졌다. 용사들은 바위를 굴리고 돌멩이로 수류탄을 대신했다.

적들은 바위와 돌멩이에 골통을 깨우고 피를 토하며 꺼꾸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원쑤들은 30 메터 거리까지 기여 들었다. 전사들의 가슴은 분노로 터질듯 했다.

그들은 《만세!》 소리와 함께 적진으로 온몸이 육탄이 되여 뛰여 들었다. 총창과 총창이 맞부딪치는 가렬한 육박전이 벌어졌다. 분대원들은 총창으로 적을 찔러 눕히고 총탁으로 대가리를 까 눕히면서 결사적으로 싸웠다.

김 상봉 전사는 원쑤를 깔고 앉아 단도로 숨통을 끊어 버리고 일어 서는 순간 그만 쓰러지게 되였다. 그러나 쓰러지는 순간 주 시흡 전사가 적과 맞붙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힘겨운 결사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때 상봉 전사의 머리 속을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저놈들을 죽이자. 그렇다. 이것은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하는 판가리 싸움이다. 만약 저놈들을 쓰러 눕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시 노예로 되리라!)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원쑤에게 뛰여 들었다. 그리고는 놈의 골통을 총탁으로 힘껏 까부시고 주 시흡 전사를 구원해 내였다.

이 때 또 다시 적의 한 무리가 보충대로서 달려 들고 있었다. 몇 명 안 되는 전우들은 이제 힘이 진해 가고 있었다.

기여 드는 적들을 노려 보던 리 히욱 동무의 눈'동자에서 분노의 불'길이 이글거렸다. 그는 부상 당하여 운신할 수 없게 된 자기가 어떻게 이 순간에 행동하여 전우들을 구원하며 최후 승리를 쟁취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내 한 몸으로 원쑤들을 소멸하고 고지를 끝까지 사수케 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그는 호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하였던 한 알의 수류탄을 꺼내 쥐고 적진으로 맞받아 나갔다.

원쑤들은 리 히욱 동무를 생포할 작정으로 우루루 몰려 들었다. 그러나 히욱 동무는 태연하게 전진하였다. 그는 적들이 턱 밑까지 다가 든 순간 수류탄 고리를 입으로 물어 뜯었다.

순간 요란한 폭음 소리와 함께 두리에 몰켜 섰던 수십 명의 적들이 죽어 자빠졌다.

위기에서 전우들은 구원되고 고지는 사수되였다. 고귀한 자기의 청춘을 바쳐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한 리 히욱 동무의 영웅적 전투 행동은 영광스러운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정신이 우리 시대 청년들의 심장 속에 지펴 준 뜨거운 불'길인 것이다.



갑자기 《만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군의 보병 부대가 공화국 기'발을 휘날리며 노도와 같이 밀려 나오고 있었다. 포항 해방 전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이였다.

기세 충천한 분대원들은 진격하는 부대 속에 섞이여 원쑤를 족치며 내달아 갔다.

해방된 포항 거리에 오각별 찬연한 공화국 기'발이 그들의 불멸의 위훈을 자랑하듯 힘차게 펄럭이였다.



영웅적 조선 청년들은 미제 원쑤를 무찌른 그 기세로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에 떨쳐 나섰다.

세인들을 경탄시킨 그 힘과 용기와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가?

청춘의 행복 여기에 있다!

1958년 4월 21일 교통 운수 부문 청년 열성자 회의에 참가한 800여 명의 민청 열성자들은 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의 교시를 받들고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부설 공사를 불과 1 년 동안에 끝낼 것을 결의해 나섰다.

그 길이가 연 200 여 리에 달하며 토량 공사만 해도 88 만 립방이나 되는 이 방대한 공사는 전례 대로 한다면 3~4 년이 걸려야 하는 데 이것을 불과 1 년 동안에 끝낸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의 기적이 아닐 수 없었다.

청년 철도 건설자들은 일에 달라 붙었다. 그들은 련일 자기의 책임량을 400%, 500% 지어는 1,000% 이상씩 넘쳐 수행하였다.

그 중에서도 《리 수복 영웅 청년 돌격대》는 《장수 중대》로 이름이 높았다.

정방산 숫돌 고개를 까부실 때의 일이다. 그 숫돌 고개 절벽 밑에는 《방아 못》이라는 깊은 소가 있었다. 그 《방아 못》에 뛰여 들어 물 속에 콩크리트 기초를 쌓고 옹벽을 쌓아야 하였다.

《옹벽 공사를 우기 전으로!》, 《리 수복 영웅 청년 돌격대》원들은 이런 구호를 추켜 들고 일떠섰다. 물 밑에다는 시판 대신에 흙가마니를 쌓아 올리기로 하였다.

진흙을 잔뜩 다져 넣은 흙가마니를 메고 첨벙첨벙 물 속에 뛰여 들었다. 물의 깊이는 두 길도 넘었다. 그들은 재빨리 물 밑에다 흙가마니를 쌓아 놓고는 다시 솟구쳐 나왔다. 그리고는 푸푸 물을 내 뿜은 후 다시 흙가마니를 메고 물 속에 뛰여 들군 하였다.

누구 하나 쉬려고 하지 않았다. 석 철식 동무 역시 벌써 하루 낮 하루'밤을 꼬박이 흙가마니를 메고 물 속에 자맥질해 들어 가군 하였다. 그러면서도 남보다 갑절이나 일했다. 아무리 6월의 강물이라 하지만 20 시간 이상을 줄창 물 속에서 일하다 나니 몸에 오한이 나고 이가 떡떡 맞쪼아졌다. 몸도 나른해졌다. 그래도 동무들이 휴식하라고 권고하면 석 철식 동무는 히죽히 웃으며 대답하였다.

《난 아직 괜찮소. 동무들이나 어서 쉬라구》.

《리 수복 영웅 청년 돌격대》원인 그의 심장에는 열아홉살 꽃 나이로 불 뿜는 원수의 화구를 틀어 막은 리 수복 영웅의 피가 끓고 있었다.

(그렇다. 영웅 리 수복이 말하듯이 나에게 있어서도 오직 하나 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나도 바로 리 수복 영웅처럼 살리라! 이것은 지나간 생활이 나에게 지적 준 신념이며 불'길이다.)

그의 눈 앞에는 왜정 때 돌아 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아슴프레 떠 올랐다. 그의 아버지 역시 왜놈들의 밑에서 이렇게 철'길 닦는 일을 했었다. 어느 한 절벽을 까부실 때의 일이다. 절벽에 구멍을 뚫고 화약으로 폭파해야 하였다. 왜놈들은 그의 아버지를 그 절벽 폭파에 내 몰았다. 지금은 그런 일을 전기 스위치로 하지만 그 때 세월엔 담배'불로 도화선에 불을 단 후 신속히 피해야 했다. 그러나 깎아지른 듯한 아슬아슬한 절벽에서 어디로 내뛸 수 있으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무서운 일밖에 되지 않았다. 왜놈들 역시 이런 사정을 뻔연히 알기는 하였다. 그러나 놈들에게는 철도 부설이 중요하지 조선 로동자 한 둘의 목숨이 중요할 리는 결코 없었다. 그래서 승냥이 같은 놈들은 철식이의 아버지를 강제로 절벽에 내몰았던 것이다.

《꽝…》

저주로운 폭파 소리가 높이 울렸다. 그러나 이미 철식이의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였다. 그의 참혹한 시체는 벼랑 밑에 무둑히 쌓인 버력더미 속에서 찾아 내였다.

그것은 철식이가 아홉 살 때 일이였다.

그 때 자기는 어머니와 함께 가슴을 쥐여 뜯으며 얼마나 애타게 아버지를 불렀던 것인가! 그런데 오늘은 당과 수상님의 따뜻한 품'속에 안겨 어엿한 기관사로, 로력 혁신자로 되였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에게는 지난 6월 19일 이 곳 청년 철도 건설장에 찾아 오신 경애하는 수상 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떠올랐다.

그 이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젊은 철도 건설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주시였다. 그 이께서는 이 철도 건설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 공사장에서 떨치고 있는 청년 건설자들의 로력적 위훈들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 나라 건설자들의 전형적 표징으로 된다고 치하해 주시였다. 그리고는 건설자들이 류숙하는 천막들과 식당들도 하나하나 돌아 보시고 그들의 건강을 념려하시여 천막의 높이를 통풍이 잘 되도록 50 센치가량 더 높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셨다.

참말이지 우리들 조선의 청년들은 얼마나 위대한 당과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있는 것이랴! 이와 같이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을 위해서라면 우리 무엇인들 아끼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자꾸만 가슴에 차고 넘쳤다. 하기에 그는 이 공사에서 스물 아홉 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불배기로 물 속에서 일하면서 580 여 개의 흙가마니를 쌓아 올렸던 것이다.

옹벽 기초 공사가 거의 끝나 가는 6월 30일 저녁이였다. 라지오에서는 밤부터 다음 날에 걸쳐 비가 내리겠다고 알렸다. 청년 돌격대원들의 가슴은 철렁하였다.

만약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읍천강 물이 불어 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때까지 공 들여 쌓은 옹벽 공사가 허물어지고 전 공사장이 물 속에 잠길 것이다.

《안 된다! 그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누구 하나 숙소로 돌아 가려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사 현장의 천막 속에서 밤을 새면서 대책을 토의하였다.

비가 소리치며 내리기 시작하였다. 읍천강 물'결은 도도히 탁류를 이루며 밀려 내렸다. 그들은 급히 40 톤의 세'멘트와 3천 여 매의

가마니며 전동기 펌프 등 귀중한 국가 물자부터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 때 누군가가 《앗》하고 소리 질렀다. 돌연 둑이 터지고 탁류가 흘러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무너진 둑, 아직 건지지 못 한 막대한 국가 물자들! 각일각 탁류 속에 잠겨 드는 공사장의 위급한 운명,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조금이라도 주저할 수 있으랴!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들 청년 건설자들이다.

《동무들! 공사장을 구하자!》

석 철식 동무는 이렇게 소리 높이 웨치며 노호하는 강물 속에 뛰여 들었다. 마치 리 수복 영웅이 위험에 처한 부대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청춘의 가슴을 활짝 벌리며 원쑤의 화구에 뛰여 들듯이…

뒤따라 전체 돌격대원들이 앞을 다투며 뛰여 들었다. 그들은 무쇠 같은 청춘의 어깨와 어깨를 걸고 홍수와 맞받아 싸웠다. 폭풍도, 홍수도 그들을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그들은 끝내나 막대한 국가 물자들과 공사장의 운명을 구출해 내고야 말았다.

어찌 이런 청년들이 일하는 곳에서 기적인들 안 일어 날 수 있으랴!

해주—하성, 그것은 실로 영웅적 기적의 련속이였다.

《1,211 고지 청년 돌격대》를 비롯한 젊은 건설자들은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라는 당의 뜻을 받들고 자동차로 실어도 열 차량이나 실히 되는 화약을 단번에 산 밑에 장약하고 7만산을 폭파하는 대발파를 진행하였다.

이 발파가 진행되는 날 하늘 땅을 진감하는 소리와 함께 버섯 모양의 검은 연기가 100 메터 이상이나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제 4 대대의 1 중대 동무들은 온갖 신비주의와 보수주의를 불사르면서 교량 건설에서 조립식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460%의 능률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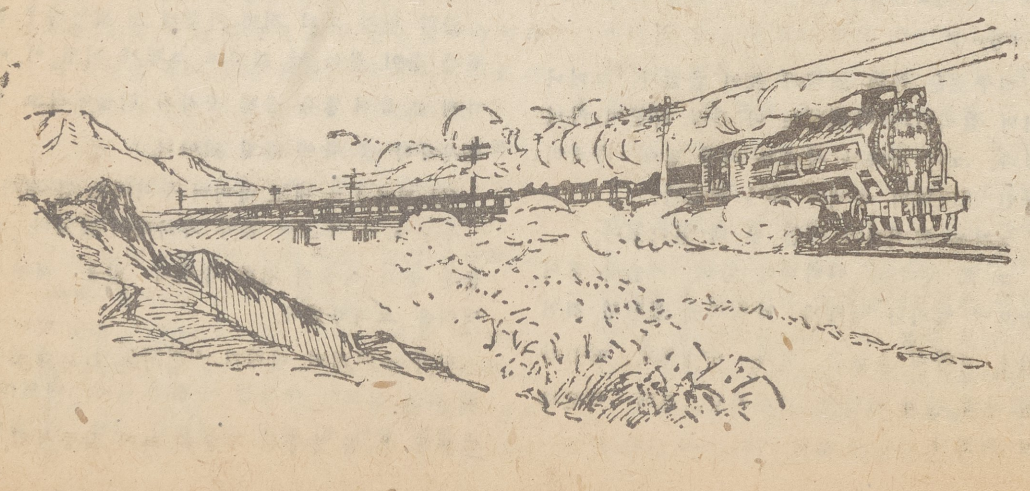
뜻하지 않게 공사장에 300 립방의 굳은 암석이 나타났을 때 백 봉학 동무가 지휘하는 트레스트 직속 소대원들은

《동무들, 1,211고지에 돌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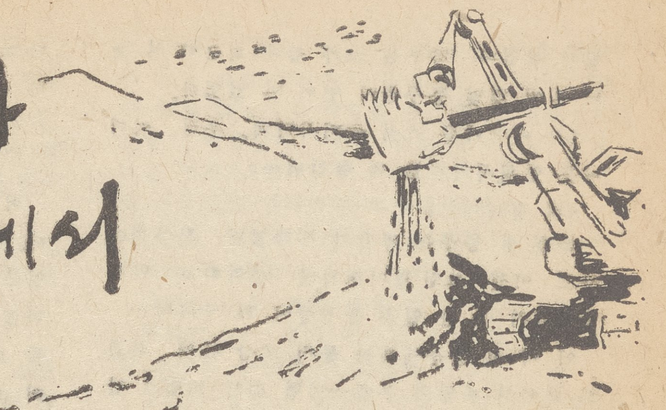
하는 힘찬 구호를 웨치면서 그것을 하루'밤 새에 까내여 1,500%라는 기적적인 성과를 거두어 세인을 경탄시켰다.

실로 이와 같은 영웅적 청년 건설자들에 의하여 적어도 3~4년 간은 걸려야 하리라던 해주—하성 간 광궤 철도 부설 공사가 불과 75일이라는 놀라운 속도로 끝을 맺았던 것이다.

우리의 영웅적 천리마 시대를 수놓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해주—하성의 젊은 건설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먼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추억 속에 길이 남아 있을 것이다.



한 천리마 작업반에서



—재령 광산 리 덕배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에 대한 이야기—

한 민청원의 생활을 두고

요 며칠 새 신 동무의 생활은 눈에 띄게 우울해졌다. 온 종일 말 없이 지내는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은 신 동무의 집을 찾았다. 그는 뜻 밖의 일에 놀랐다. 신 동무의 어머니가 앓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민청 단체가 사람과의 사업을 쓰게 못 하였구나)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괴롭히였다.

이 문제를 두고 민청 단체에서는 심중한 토론이 벌어졌다. 문제는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은 후에는 모든 일이 잘 되려니만 생각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지 못한 데 있었다. 이를테면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질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투쟁에 계속 심중한 관심을 돌리지 못 했던 것이다.

그 날 밤 작업반 내 민청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았다. 그들은 모두 민청 위원장의 말을 듣고 좋은 의견들을 내놓았다. 어떤 동무들은 그의 집을 도와 주자고 하였고 어떤 동무는 그의 일상 생활에 대한 동지적 방조를 자청해 나섰다.

한편 그들은 신 동무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여기에서 그들은 신 동무에게 아직도 원쑤를 증오하는 계급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쟁 때 폭격에 희생된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서만도 그러 하였다. 즉 그는 아버지의 희생에 대하여 슬퍼는 하면서도 바로 아버지를 죽인 원쑤놈들을 증오하는 사상은 약했다. 이런 데로부터 사업과 생활에서 적극성이 부족하였고 곤난한 일에 부닥치면 곧 우울해지는 것이였다. 무엇보다도 그의 계급 의식을 높여 주는 문제가 중요하였다.

어느 날 휴게실에서는 초급 민청 단체 위원장과 신 동무의 담화가 벌어졌다.

《신 동무! 생각할수록 절통한 일이지요, 미국놈들은 생떼 같은 신 동무의 아버지를 한창 살 나이에 빼앗아 갔지, 어머니의 건강마저 빼앗아 냈지. 그래 놈들이 어째서 그렇게 했을가요?》

《……》

《놈들은 바로 우리에게서 생활을, 기쁨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하였소.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울해 한다면 과연 누가 좋아하겠소? 그것은 미국놈들이요, 때문에 우리는 억센 정신으로 살아야 하오, 원쑤놈들을 미워하는 불같은 정신으로 말이요.》

민청 위원장의 이러한 말마디들은 신 동무의 가슴에 증오의 불씨를 안겨 주었다. 그 후 그는 거의 매일과 같이 신 동무를 만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차근차근하여 주었다. 실로 그는 한 민청원의 계급 의식을 높여 주기 위하여 수십 회나 그를 찾아 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신 동무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일이 생겼다. 하루는 그가 집에 퇴근해 와 보니 벌써 몇몇 동무들이 먼저 와 있었다.

《자 어머니를 어서 준비시키게, 우린 어머니를 입원시키기로 해 놓았어…》

《뭐 병원에?》

순간 신 동무는 가슴이 찡하였다. 친자식조차도 이젠 고질'병이려니만 생각하고 미처 궁리하지 못 한 일을 동무들이 해 주다니…

이 때 신 동무에게는 동지 호상 간에 튼튼히 맺어진 계급적 우애—이런 것이 뜨겁게 안겨 왔다.

《동무들 고…고맙소》

신 동무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동무들도 그를 부둥켜 안았다. 어머니는 당일로 입원되였고 그 후에도 동무들은 그의 생활의 이모 저모를 친 동기간처럼 보살펴 주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신 동무는 차츰 계급적 각성이 높아져 갔고 일에서도 한층 더 충실하게 되였다. 그의 얼굴에서 우울하던 기색도 가신듯이 사라져 갔다.

어느날 김 병선 동무가 직장에 나오지 못하였을 때에도 신 동무는 작업반장 리 더배 동무에게로 달려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반장 동무, 김 병선 동무의 몸이 편치 않아서 제가 그 대신 일하자고 나왔습니다.》

《뭐? 동무가? 동무는 간밤에도 일하지 않았소?》

《일 없습니다. 하루'밤 자지 못 한 것 쯤이야 견뎌 낼 수 없겠습니까! 아버지의 원쑤를 갚아야지요》

《옳소, 그래야 하오.》

작업반장 리 더배 동무는 더는 말을 못 했다. 사람들의 심장 속에 계급 의식의 불을 지필 때 그것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가!

그 밖에도 민청 단체에서는 작업반 내 젊은 천리마 기수들의 계급 의식을 높여 주기 위한 여러 가지 교양 사업을 하였다. 매주 정상적으로 회상기 학습도 진행하고 미제와 지주, 자본가들의 본성을 생동한 자료로 폭로하는 담화 사업도 짬짬이 조직하였다. 그런 결과 그들 천리마 작업반은 한층 더 공고한 집단으로 꾸려여졌고 생산 성과도 부쩍부쩍 올라 갔다.

정지, 그것은 안 된다!

어느 날 그들이 다루는 굴착기에 사고가 났다. 생산은 30 분 간이나 정지되였다. 원인은 일부 운전공들 속에서 아직도 기계에 정통 못 하였기에 규정을 위반한 데 있었고 또 기계를 잘 모르다 나니 사고가 생기자 수리공들을 데려 오느라고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작업반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주어야 하였다.

이 문제를 포착한 민청 단체에서는 그 후 천리마 작업반원들 모두가 야간 고등 광업 학교, 직장 기술 학습반 등에 망라되여 공부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모두가 운전공인 동시에 수리공이 되자!》는 구호를 내걸고 투쟁하였다. 로기능공이 신입 로동자들을 배워 주기 위한 개별 전습 체계도 더욱 확립되였고 굴착기의 수리에 대한 시범 학습도 자주 조직되였다.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은 눈에 띄게 버쩍버쩍 장성했으며 불과 1 년 사이에 5.3 급으로부터 6.3급으로 장성하였다.

또한 일부 동무들 속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즉 자기들은 굴착기로 기계화된 조건에서 일하는 만큼 더는 기술 혁신을 할 여지가 없다면 그릇된 편향도 점차로 극복되였다.

어느 날 한 민청원이 더배 동무에게로 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굴착기 권양 드라므의 직경을 늘쿠면 어떨가요?》

《건 어째서?》

《그렇게 하면 바가지의 회전 속도를 훨씬 높일 것만 같아요.》

작업반장은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다. 과연 새로운 창안이다.

《언제 그런 엉뚱한 궁릴 다 해냈소?》

작업반장은 어린 민청원을 찬찬히 보며 물었다. 그러자 그 민청원은 좀 섭섭해 하는 듯한 어감으로 대답하였다.

《원, 반장 동무두… 천리마를 탄 사람이 아무렴 그만한 것도 못 궁리해 내구서야 어찌겠어요?》

작업반장은 크게 껄껄 웃었다.

《옳소, 우리에게 정지란 있을 수 없소.》

일은 곧 착수되였다. 더러는 밤을 밝혀 가며 설계하였고, 더러는 자재들을 구하여 왔다. 집에 돌아 가지 않고 식사를 현장에 날라다 먹으며 일하는 동무들도 있었다. 모두가 불'덩어리처럼 되여 일했다.

드디여 권양 드라므는 580 미리로부터 820 미리로 늘쿠어졌다. 시운전을 해 보니 바가지의 회전 속도는 거의 곱이나 되게 빨랐다.

《야!》

작업반원들은 모두가 환성을 질렀다. 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만도 교대 당 140 톤의 광석을 더 캐게 하였다.

그 밖에도 그들 젊은 천리마 기수들은 굴착기의 위치 선택에서 중심식 방법을 후진식 방법으로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의 기술적 창안을 일으킴으로써 교대 당 240 톤의 석탄을 더 캐게 하였다.

그들의 생활은 계속 혁신과 계속 전진의 흥겨운 나날 속에 들끓어 번졌다.

그들은 모두가 살림'군이다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은 후 그들의 생활에서는 날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꽃피여 났다. 그들은 모든 일에 주인다운 태도로 참가하였다. 그 누구나 생산의 주인, 작업반의 주인으로 자처하였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민청 단체가 많은 힘을 기울였다. 민청 단체는 모든 민청원들로 하여금 생산과 사업에서 주인이 되며 국가 사회 재산을 적극 아끼고 사랑하도록 교양했으며 그들이 일상 생활에서도 없는 것은 만들어 내고 부족한 것은 찾아 내여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도록 교양하였다.

그런 결과 그들 젊은 천리마 기수들 속에서는 날로 살림'군다운 태도가 높아져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민청원 김 경선 동무는 휴가차로 고향인 평북 선천군 수청리에 갔다. 이 때 그의 머리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옳지.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전의 철산 광산 자리가 있다. 거기에 가면 혹 낡은 부속 같은 것이 있을런지 모른다.)

다음 날 그는 일찌기 집을 나섰다. 광산 자리에 와 보니 과연 거기에는 낡은 쇠쪼박들과 부속들이 우거진 버드나무 숲 속에 군데군데 박혀 있었다. 그는 몇 개의 기야를 얻어 내였다. 그의 기쁨은 여간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돌아 가면 굴착기의 부속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는가! 작업반 동무들의 기쁨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는 여기로 왔다.

집 식구들은 안타까와 그에게 말했다.

《애야, 오래간만에 휴갈 왔는데 좀 쉬렴, 이야기도 좀 나누구…》

그러나 그는 계속 광산 자리에 찾아 갔다. 그리하여 그는 휴가 기간에 7 축 기야를 비롯한 귀중한 부속을 37 키로나 얻었다.

휴가가 끝나고 고향을 떠나는 날 그는 부속을 지고 수청 고개를 넘어 역전까지 30리'길을 왔다. 광산에 돌아 왔을 때 동무들은 그가 메고 온 커다란 부속품 짐짝을 보고 그의 남다른 아름다운 소행에 깊이 감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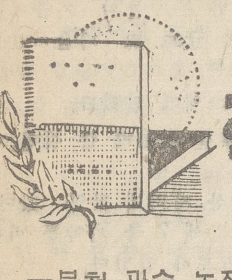
그들 천리마 작업반원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였다. 하기에 그들의 기대는 항상 알른거리게 닦이워져 있고 정상적으로 3 개월분 이상의 예비 부속품도 마련되여 있으며 기대의 리용률도 20 %나 더 제고되였다.



그림, 김 동철

이처럼 리 더배 천리마 청년 작업반원들은 천리마 작업반의 영예를 계속 빛내이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부단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본사 기자 김 학일



한 민청원의 노력

—북청 과수 농장 김 호준 동무에 대한 이야기—

호준이는 도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한 쪽 켠 큰 가지를 몽청 잘리워 볼품 없이 된 사과나무가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것이였다.

낮에 있은 일이다. 오전 일을 끝내고 과원을 지나 오던 호준이는 큰 가지들이 잘리워 병신이 된 세 그루의 사과나무를 보았다. 그는 함께 가던 아바이에게 물었다.

《저건 어째 저렇게 잘랐는가요?》

《그 몹쓸 놈의 부란병 때문이지.》

《아니 어떤 병인데 저렇게 큰 나무를 잘라야만 하나요? 전 방지할 수 없는 건가요?》

《글쎄 아직은 그놈의 병균을 죽이는 약이 없다고 하더군.》

호준이에게는 이것이 잘 리해가 되지 않았다. 헌데 그것 뿐이 아니였다. 얼마 전에 작업반원들 속에서 론쟁이 벌어졌던 격년 결과 현상 역시 알 수 없는 일이였다. 많은 사람들, 그 것도 나이 많은 축들이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우겨 댔다.

호준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과연 부란병이나 격년 결과 현상이 어쩔 수 없는 것이겠는가? 아니다! 내가 이것을 연구해 보자. 그러구 일하면서 배워 기수, 기사가 되자!)

밤새껏 모대기던 호준이는 굳은 결심을 다졌다.

그러나 다른 한켠으로는 초중 정도의 지식도 변변히 못 가진 내가 과연 해 낼 수 있을가 하는 위구도 없지 않았다.

(아니 공부를 하자. 지금은 학교라군 문전에도 못 가본 사람들이 일하면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세월인데 나라고 하필 그렇게 못 할 리유가 어데 있단 말인가.)

다음 날부터 그는 학습에 달라 붙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작 달라 붙어 보니 그렇게 뜻 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진종일 경사 진 과원을 오르 내리며 일을 하느라 지친 데다가 저녁에 민청 회의나 학습회에 참가하게 되면 책은 쥐여 보지도 못한 채 잠이 들군 하였다. 그런 데로부터 하루 이틀 학습을 미루다 나면 어떤 달에는 계획했던 학습을 30 %도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다. 그래서 호준이는 어떤 일이 있드라도 그 날 학습 계획은 반드시 그 날에 수행하는 것을 철칙으로 내세우고 투쟁했다.

《원 나이 서른 가깝두룩 못 했던 공부를 한꺼번에 다 하겠어요? 몸을 좀 돌보세요.》

밤 늦도록 앉아 있는 남편의 건강이 념려되여 안해가 말하면

《쉴 대로 다 쉬고야 어느 세월에 공부를 하겠소.》 하고는 계획 대로 학습을 진행하군 하였다.

한 번은 검정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시험 준비에 열중하던 호준이가 그만 감기에 걸려 눕게 되였다.

그러나 호준이는 감기로 인한 괴로움보다 채 준비 못한 당 력사 시험 공부가 더 근심되였다.

호준이는 도저히 그 대로 누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수건을 머리에 질끈 동여 매고 누운 채로 책을 펼쳐 들었다.

《여보, 몸이 편치 않을 땐 좀 그만 두시라요.》

병 구완을 하던 안해가 하도 보기 딱해 애원하듯 말했다. 그러고는 그의 손에서 책을 빼앗았다. 그러나 깊은 밤 잠에서 깨여 보니 남편은 역시 책을 들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병으로 앓아 누웠던 닷새 기간에도 계획했던 당 력사 2장, 3장 부분 학습을 전부 해 내고야 말았던 것이다.

호준이는 이렇게 완강하게 공부하였다. 그가 얼마나 정력적으로 학습하였는가 하는 것은 지난 기간 기수, 기사 검정 시험을 준비하는 행정에서 각종 참고 서적들을 500 여 권이나 독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원래 공부를 못 한 호준이에게 있어서 제일 애 먹은 것은 일반 과목 학습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준이는 휴가 기간을 리용하여 이웃 중학교 교원들의 방조를 받기로 결심했다. 교원들도 그의 청을 기특히 생각하고 쾌히 들어 주었으며 적극 도와 나섰다. 그리하여 어떤 때엔 책보를 끼고 나어린 학생들과 같이 학교에도 갔다. 그리고는 학생들 틈에 끼워서 수업도 받았다. 호기심 많은 소년들은 난데 없이 나타난 어처구니 없이 큰 학생이 무엇을 하는가 해서 교실 창 밖에 우르르 몰려 들어 와서는 기웃거리며 들여다 보기도 하였다.

20 대의 팔팔한 청년인 호준이에겐들 왜 자존심이 없었겠는가? 숱한 아이들의 눈총을 받는 가운데서 《아직도 리해가 안 되요?》 하는 녀교원의 말을 듣게 될 때면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군 하였다. 허나 그는 젊은 혈기에 치받치는 자존심마저 오로지 배우려는 욕망으로 막차 버리군 하였다.

호준이는 이렇게 허심하게 배우면서 그 어려운 일반 과목들도 점차 소화해 나갔다.

호준이는 언제나 학습을 실천과 결합시켜 나갔다. 그는 시기별 영농 작업에 비추어 밭을 갈고 비료를 낼 때에는 <토양 비료학>을 공부했으며 해충을 구제해야 할 시기에는 <식물 보호학>을 공부했다. 그러면서 실제 영농 작업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히기에 힘썼다.

그는 1960년에 드디여 어엿한 원예 기수의 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어찌 이러한 성과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호준이는 새로운 결심을 다지고 원산 농대 통신 학부에 입학하였다.

한편 호준이는 작업반원들의 기술 학습에도 큰 관심을 돌렸다. 그는 이것이 기술 혁명 시대에 사는 청년으로서의 응당한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농장원들의 학습을 적극 도와 나섰다. 그의 발기에 의하여 작업반 기술 크루쇼크가 조직되였고 자신은 강사로 출연하였다. 남들과 같이 일하고 짬짬이 제강을 준비하여 강의하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일 주일에 두 번씩은 꼭꼭 제강을 짜 가지고 출연했으며 그들의 학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작업반원들의 학습을 방조해 주기 위하여 도서관이나 학교, 서점 등을 찾아 다니며 교과서나 참고 서적들을 빌려다 주기도 하고 구해다 준 것만도 2,980 여 권이라는 막대한 수'자에 달한다. 그는 책을 구하기 위하여 주변 군 서점들과 학교들은 물론 함흥이나 지어는 보천보 서점에까지 련계를 가지면서 필요한 책들을 구해 들였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직관 교수를 위해서 200 여 매의 각종 도해들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 리용하였다.

8 년 간에 걸치는 간고한 투쟁은 드디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았다.

호준이의 꾸준하고 성의 있는 방조에 의해서 작업반원들 중에서는 7 명의 기수와 75 명의 일부 과목 합격자가 배출되였다.

또한 호준이도 이제 8월이면 통신 대학 과정을 마치고 당당한 원예 기사의 자격을 받게 된다.

우리는 이런 청년을 자랑한다.

본사 기자 김 영길

《책을 쌓아 놓고 읽지 않는 것은 갈갈히 찢어 버리는 행위와 다름이 없으며 글'줄을 되는 대로 설치고 넘어 가는 것은 빈둥거리며 노는 것과 다름이 없다》 —리 덕무—

실화



수난의 길을 잊지 말라!

—량강도 도시 건설 트레스트 검열부 엄 기순 동무에 대한 이야기—

여섯 식솔의 운명

지금으로부터 40 년 전 만경 창파 우에 떠돌던 한 채의 낡은 목선은 모진 풍파를 만나 끝없이 흘러 가다가 그만 암초에 부딪치고 말았다. 목선은 각이 무너나며 모로 눕고 있었다. 이 위급한 찰나에 배'군들은 갈팡질팡하며 널판자를 물에 던지고 뛰여 내렸다.

그로부터 몇 날 몇 시간이 흘렀는지 조수와 함께 기슭으로 밀려 온 한 배'군은 마음씨 착한 다른 배'군에 의하여 구사 일생으로 살아났다.

이 배'군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엄 기순 동무의 아버지 엄 덕천이였다.

덕천은 사람들의 등에 업혀 집에 와서 앓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난데 없이 따께모자를 쓰고 개화장을 든 웬 사나이가 달려들더니 아직 정신이 흐릿해 누워 있는 환자를 와락 잡아 일으키며 벽력같이 소리 질렀다.

《이 놈아, 배는 어떻허구 너만 살았니? 배를 내놔라, 배를…》

그 다음 날 최 선주놈은 일본 순사놈과 같이 오더니 조난 당한 배 값으로 필경 죽었을 다른 배'군들의 몫까지 합하여 1 년 품삯과 맞먹는 돈 대신 그 집 문마다 못을 박고 빨간 딱지를 붙였다. 이리하여 살아 돌아 온 대'가로 여섯 식솔의 가산을 몽땅 털린 덕천은 이를 뿌드득 갈며 단천 룡대를 떠나 읍으로 들어 갔다.

덕천은 거기서 한 달에 한 번도 맞다 들기 어려운 등'짐 지기며 온돌 놓는 일을 찾아 그럭 저럭 살아 가다가 안면 있는 친구의 인출로 어느 고리대금업자에게서 7 푼 변으로 돈 30 원을 꿨다.

덕천은 그 돈으로 쪽배를 사서 잘만 고기를 잡는다면 1 년이면 빚을 갚고 그 선주놈 등'살에 뜯기우고 사는 것보다는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룡대로 왔다. 어느 날 덕천은 신포로 가면 쪽배를 살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부두로 나갔다. 그가 신포로 간다는 배에 오르려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소리 질렀다.

《여보게, 자네 배 사러 간다는데 곬을 알아야 하네, 우리도 선주님 분부로 목선 한 채 사러 가는데 우리 배에 오르게.》

사나이는 최 선주놈의 심부름을 듣는 거간놈이였다. 그 배에는 두 녀석의 거간놈이 앉아 있었다. 덕천은 그놈들을 따라 가면 행여나 배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배로 자리를 옮겼다.

배는 륙지를 떠나 먼 바다로 들어 갔다. 덕천의 마음은 바다처럼 설레였다.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선주놈 보란듯이 살리라. 한 해에 빚을 다 갚고 다음 해에는 오막살이 한 간 사고 아이들도 배 불러 먹이고 안해의 소원도 풀어 치마, 저고리도 사 입히리라…)

그러나 그의 이런 아름다운 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갑자기 야수 같은 두 놈이 왈칵 달려 들던 순간, 덕천은 그만 벼락 같은 도끼에 맞아 소리도 못 치고 쓰러졌다.

눈에 불을 켠 두 야수는 재빨리 덕천의 몸에서 돈을 털고 그를 바다 속에 처넣었다. 이 자들은 덕천이가 배를 살 돈을 꾸었다는 소문을 들은 그 날부터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앗아낼가 궁리하며 미친듯이 그의 뒤를 따랐던 것이다. 이 얼마나 몸서리치는 일인가!

이렇게 집 주인이 승냥이들의 먹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덕천이네 집에는 그 후 더 큰 불행이 들씌워졌다.

날마다 밥 달라고 울며 졸라 대던 맏딸 시뚤녀와 세째 기선이는 홍역으로 끼근거리더니 이제는 밥 달라는 소리도 없이 영영 눈을 감고 말았고 이어 두 아이가 또다시 드러누웠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두 아이를 업고 안고 단천읍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찾아 갔다. 그러나 병원 의사놈은 어머니의 초라한 옷차림을 코'등에 건 안경 너머로 훑어 보더니 《거지》라고 아예 들어 서지도 못 하게 하였다.

그 날 밤으로 막냉이 기열이도 그 또렷또렷하던 눈을 감고 말았다. 어머니는 너무도 원통하여 땅을 치며 울었다. 세상은 너무도 야속하고 무심하였다.

그 놈들은《쌍둥이 형제》였다

기순의 어머니 막동녀는 부두에 나가 고기밸을 따 준 대'가로 얻은 생선 쭉드레기를 이고 촌에 다니며 보리쌀을 바꿔다 그럭저럭 두 목숨(어머니와 기순이)을 이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마침내 치떨리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과 두 놈의 거간놈이 같은 배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는 한 배'군의 말에 의하면 그 배가 바다에 나갔다가 인차 되돌아왔는데 배에는 이상하게도 옷에 피가 묻은 두 거간놈만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였다. 그리고 다른 배'군들도 이러저러한 증거를 대면서 두 거간놈을 틀림 없는 살인자로 짚었다.

어머니는 그 길로 주재소로 달려 가서 이 사실을 고발하고 남편의 원쑤를 갚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그 때문에 도리여 무서운 보복이 돌아 올 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다음 날 그들의 집에는 일본 순사놈과 거간놈이 나타났다.

《너 거짓말 고발해서 우리 경찰 큰 혼란 있었다. 너 남편 강도질 해 가지고 도망 쳤다. 남편 어데 갔는가 대라.》

일본 순사놈은 이렇게 날조하여 가지고 으르릉 거렸다. 그러자 옆에 섰던 거간놈이 갑자기 《쌍년 같으니!》 하고 불이 번쩍 나게 어머니의 볼따귀를 쳤다.

《이 년아 네 남편이 강도질하니 남도 강도질하는 줄 아니? 이 도적년아!》

이 날 놈들은 어머니를 주재소로 끌고 가서 반죽음이 되도록 매질을 하였다.

후에 안 일이지만 놈들은 이 일에 앞서 최 선주네 집에다 술'상을 벌려 놓고 암소 갈비를 뜯으며 《도적질을 해 먹어도 마음이 맞아야 한다》고 맞장구를 치며 껄껄 웃었다는 것이다.

놈들의 이런 《연극》의 결과에 어열이 든 어머니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좀처럼 일어 나지 못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는 또 생각치 않은 봉변이 생겼다. 웬 낯선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당장 돈 30원과 리자 21원을 내라고 호통을 쳤다. 고리대금업자였다. 어머니는 벌어서 후에 빚을 꼭 갚겠다고 별의별 사정을 다 해봤지만 그놈은 미친 개처럼 방안을 싸다니다가 기순이에게 덮어 주는 누더기와 부뚜막에 걸어 놓은 가마며 숟가락마저 박박 긁어 갔다. 그 놈은 한 달에도 서너 번씩 와서 이렇게 지랄을 쳤다.

이리하여 마음 고생으로 병이 더해진 어머니는 드디여 기순이가 여덟 살 잡히는 해에 혼미해지는 정신을 가다듬어 기순이를 불렀다.

《너 하나도 키우지 못 하고 죽는 게 원통하구나, 기순아, 내 죽거든 강원리 륙촌네 집엘 찾아 가라, 그 집에서는 머슴을 두고 잘 산단다. 그래도 친척이니 남보다는 나을 게다.》

숨 거두는 순간, 어머니는 뼈만 남은 기순이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주루룩 흘렸다.

이리하여 아직 입에서 젖내가 풍기는 여덟 살 짜리는 이제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친척》네 집을 찾아 갔다. 《친척》네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 집은 3년 묵은 쌀이 독마다 그득하였다. 속담에 쌀독에서 인심 난다고 했지만 이 집 인간

들은 차기를 어름'장 갈고 린색하기를 비할 데가 없었다.

기순이는 낮에는 소를 몰고 들에 나가 갈을 베야 했고 저녁에는 밤낮 없이 깽깽거리는 그 집 손자 아이새끼를 업어 재워야 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채찍질을 하다가도 조금만 허리 쉼을 하면 《밥 처먹고 팔자 펼 셈이냐》고 당장 매질하고 밥도 주지 않았다.

기순이가 열두 살 때였다. 하루 종일 아가리를 벌리고 있던 손자 아이새끼를 업어 재우고 마당에 나갔다가 들어 왔는데 아이의 눈'덕이 갑자기 퉁퉁 부어 올랐다. 모기가 쏜 것이였다. 이것을 본 주인년이 벅작 고와 대자 주인집 년놈들이 개떼처럼 모다 붙어 기순이를 치고 패고 차며 모듬매를 들씌웠다. 나중에 지주놈은 피 묻은 장작 깨비가 부러져 가도 성차지 않아 구두'발로 몸뚱아리를 짓밟아 주고는 《너 같은 것 천을 주고도 내 아이 하나를 못 바꿔!》 하며 씨근덕 거렸다.

까무라친 기순은 몸을 꼼짝 움직이지 못 하고 열에 뜬 소리를 치며 앓았다. 앓아 누운 그의 뇌리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조난 당한 배에서 아버지가 살아 돌아 왔다고 가산을 떨어 간 선주놈이나 돈을 탐내여 아버지를 물에 처넣은 거간놈을 극악하다 했는데 이 지주'집 년놈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또한 그 살인 강도 거간놈을 원쑤 갚아 달라고 고발한 어머니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때리며 반면에 그 살인 강도 거간놈을 좋은 사람이라고 비호하는 일본 경찰놈은 또 얼마나 날강도인가!

그는 생각할수록 진절머리가 났다. 그 놈들은 똑 같은 배짝인 《쌍둥이 형제》들이였다.

기순은 진저리 나는 이런 놈들이 없는 데서 살고 싶었다. 마침내 그는 16 세 되던 해 그 집을 뛰쳐 나고 말았다.

어디를 가나《지옥》이였다

성진 부두'가 산'기슭으로부터 바다'가로 뻗은 철도 연선에서 개미 같은 사람들이 집채만한 구루마를 밀고 가는데 그 뒤로 회초리를 든 일본 감독놈들이 눈알을 부라리며 호통을 치고 있었다.

기순이가 도망을 쳐서 처음으로 찾아 간 일터는 이런 곳이였다.

조선 사람에게 착취의 올가미를 씌워 빼앗아 낸 모든 재부를 일제는 이 부두로 해서 일본으로 실어 가기 위해 여기에 부두 건설 공사를 벌려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부두에서 일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공사장에는 감독놈들이 쓰자는 인부 수보다 일하겠다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다. 이들은 다 왜놈과 지주들에게 땅을 떼운 농민들이였다. 한 끼 끼니'감이 없는 그들은 래일 일을 얻으려고 밤 12시부터 나가 빈 밀차를 잡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였다. 밤새 밀차를 지키다가 아침에 거들먹거리며 나오는 감독놈에게서 일을 시킨다는 표쪽까지 받아야 일할 수 있었다.

기순은 벌써 열흘째나 오돌오돌 떨면서 밤을 새워도 표쪽이 차례지지 않았다. 일할만한 사람을 골라가며 표쪽 주는 감독놈은 기순이 따위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기순은 떼질을 해서 겨우 열 하루만에 밀차를 잡긴 했으나 벌써 며칠째 굶은 그가 장정도 힘겨워하는 밀차를 어떻게 밀 수 있었겠는가!

죽을 힘을 다해 구배가 심한 산'비탈에 와서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 자식아!》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기순은 다섯 길도 넘는 홈채기에 휘영 나 떨어졌다. 뒤에서 따라 오던 왜놈 감독놈이 몽둥이로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던 것이다.

선지피를 흘리고 쓰러진 기순은 인정 많은 로동자들에 의하여 겨우 살아 났다.

밀차를 잡지 못 하면 굶는 날이요, 잡은들 이런 봉변을 면할 수 없는 기순이 신세… 이것은 비단 기순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인부들의 신세였다.

그 후 기순이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 어느 개인 청부업자의 집에서도 일하고 큰 공사판에도 다녔으나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이 행세를 하는 그 놈의 세상에서는 어디를 가나 똑 같은 《지옥》 이였다.

오늘의 행복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8.15 해방과 함께 이 나라 강산에는 행복의 웃음이 출렁이였다.

기순은 이 첫 기쁨을 고향인 단천에서 맞았다. 항일의 투사들이 피로써 찾아 준 조국 땅우에는 인민 정권이 수립되고 땅은 영원히 밭갈이 하는 농민의 것으로 되였다. 일제와 자본가, 청부업자 놈들이 독차지 했던 공장도 로동자들의 것으로 되였다.

기순은 발악하는 계급적 원쑤들과 싸우며 적산 몰수 사업의 선두에 섰다.

어느 날 그가 최 선주 놈의 목선들을 넘겨 받을 때였다. 속에 안달이 나 바다'가로 달려 나온 최 선주놈은 그 때까지도 속이 살아서 펄펄 뛰며 소리 질렀다.

《어느 놈이 내 배를 다치느냐, 이 도적놈들 같으니, 닭은 돌을 먹고 새겨도 내 배는 먹고 못 새길 줄 알아라》.

기순은 이 놈을 보자 전신의 피가 거꾸로 치받쳐 올랐다.

《이 놈아, 배'군들의 피땀을 빨아 먹다 못해 강도질 하고도 견디던 왜놈의 세상인 줄 아니? 어디 죽어 봐라》.

기순은 달려 가자'바람으로 그 놈을 멨다 꼰졌다. 그리고는 꼬꾸라져서 버둥거리는 그 놈의 대가리를 쇠뫼 같은 주먹으로 박살시키고 말았다.

세월이 흐를수록 나라는 부강해져 사람마다 만복을 누리였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 왔는가!

상가'집 개만도 못 한 천대를 받던 기순이를 당은 포근히 안아 주며 1946년에는 로동당원으로 받아 주었다.

30이 가깝도록 제 이름'자를 못 쓰던 그는 당의 배려 밑에 글을 배워 마음 대로 읽고 쓰게 되였으며 얼마 전에는 당 학교까지 졸업하였다.

실로 그는 당의 품'속에서 비로소 사람으로 태여 난 기쁨을 알았고 일하는 보람, 사는 보람을 진정으로 맛보았다.

그는 지금 6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맏아들 춘부는 인민 군대에 나가 복무하고 있고 그 아래 두 아이는 초중, 그 아래 아이들은 인민 학교와 유치원에 다닌다.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마음 속으로 부르짖는다.

(다시는 그 저주로운 세상이 오지 못 하게 해야 한다. 다시는 그 어떤 원쑤도 우리의 행복을 짓밟지 못 하게 이 제도를 끝까지 지켜 싸워야 한다.)

그러기에 그는 언제나 남보다 일찌기 출근하고 남보다 곱으로 일하고도 성차지 않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다. 오랜 미장공인 그는 량강도 도시 건설 트레스트에 온 이래 9년을 하루 같이 일했으며 30명의 신입 로동자들을 미장 고급 기능공으로 이끌어 올렸다.

엄 기순 동무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기의 체험담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맺군 한다.

《우리가 진실로 행복하게 잘 살자면 혁명의 령도자인 자기의 당을 가지고 자기의 주권을 튼튼히 틀어 쥐여야 하지요, 때문에 나는 언제나 당을 위하여 온갖 계급적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마음에 새기군 하오》.

조 경직

청년생활 소사전

사람이 하루 동안에 소비하는 에네르기의 량

인체 내에 있는 1 그람의 지방은 9.3 키로 카로리의 열 에네르기를 가지고 있다. 이만한 량의 열은 한 리터의 물을 섭씨 9°로 충분히 덥힐 수 있다. 건강이 정상적인 성인은 1 주야에 약 2,400 키로 카로리의 에네르기를 내는데 이것은 24 리터의 물을 끓일 수 있는 열량이다. 지구에 사는 약 25억의 인구가 1 주야 동안에 내는 열 에네르기는 65억 키로 카로리라는 굉장한 량인바 이 열로써는 하나의 큰 강물을 끓게 하는 데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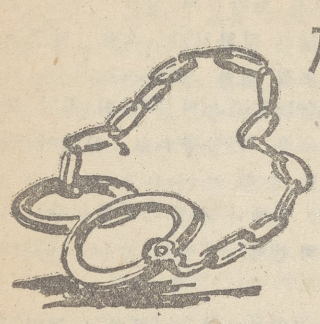
치약의 대용품

동무들은 사과를 먹으면서 지금 자기가 이와 입안을 소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과는 이와 입안을 소독하는 데 매우 좋은 약재로 된다.

사과를 먹을 때에는 입안에 있는 세균의 96.7 %가 제거된다.

귤도 사과처럼 강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사과나 귤을 먹은 후 물로 입안을 씻어 내면 치솔로 이를 닦는 것과 같다.



제국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1)

최 승섭

승냥이의 선심

제국주의는 승냥이다. 승냥이 본성은 탐욕적인데 그 방법은 간교하다.

…어느 날 한 마리의 어린 산양은 간악한 이리에게 쫓기여 길을 잃고 헤매이다가 그만 불행하게도 벼랑에서 떨어져 중상을 당했다.

양은 너무도 다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꼼짝 못 하고 신음 소리만 가늘게 내고 있었다.

마침 그 옆을 지나 가던 승냥이 한 마리가 양을 보고 슬쩍 숲 속에 몸을 숨기였다. 그리고 그는 신음하는 양을 찬찬히 노렸다. 입에서 군침이 흘려 내리는 꼴이 당장 덤벼 들듯 싶었던 승냥이는 양이 부상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슬금슬금 다가 갔다.

승냥이는 양에게 동정어린 말을 던졌다.

《에고, 참 불쌍해라, 얼마나 아프겠니, 너 신음하는 꼴은 정말 못 보겠구나, 내가 너의 아픔을 모르게 도와줘야겠다.…》

양은 의외로 너무나 고마와 승냥이에게로 몸을 돌리고 《…고마와요. 좀 도와 주세요》하면서 승냥이의 구원을 간청했다.

이 때 승냥이는 넌지시 웃음을 지으며 《그래 도와 주마, 아픔을 모르려면 얼른 죽어야 하지…》하면서 구원을 애걸하는 양을 잡아 먹었다.

양을 잡아 먹은 승냥이는 그 후에도 자기는 양을 결코 잡아 먹은 것이 아니라 그의 요구 대로 도와 준 것이라고 말했다.

양을 돕는 승냥이에 대한 옛'이야기에서 이 승냥이의 교활하고 음흉하고 잔인한 것이 오늘의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 제국주의가 다른 나라를 도와 준다는 《원조》와 신통히도 같다.

간악한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우리 조국이 해방되자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 18년 동안이나 도와 준다는 소위《원조》에 대하여 요란스러히 떠들어 왔다. 즉 경제를 《부흥》시킨다느니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킨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의 남조선은 그 어느 모로 보나 나아진 것은 전혀 없고 더 황폐화되였다.

오늘 남조선의 민족 산업은 여지없이 파괴 몰락되고 공업이란 말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도꾜 해외 방송》은 서울—부산 간 4백 키로 메터의 철도 연선에서는 전혀 공장에서 연기를 볼 수 없을 정도라고 전하게 되였다.

만약에 남조선 공업이 있다면 그것은 미제의 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예속된 공업 뿐이다. 그러므로 면화가 안 들어 오면 방직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하며 사탕 원료가 들어 오지 않으면 제당 공장이 움직이지 못 하고 있다.

또한 농업도 여지 없이 파괴되였다.

그러므로 남조선 농촌은 지난날의 량곡 수출 지대로부터 매년 수백만 석의 량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입 지대로, 이른 봄부터 100여만 호의 절량 농가들이 생기는 기근 지대로 전변되였다.

이와 같이 남조선 민족 경제의 총 파탄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암흑의 도탄 속에 굴어 떨어지고 있다. 빈궁과 기아, 질병, 그리고 래일에 대한 절망 등이 그들을 휩싸고 있을 뿐이다.

바로 이것이 미제가 18년 동안이나 소위 《경제 원조》의 이름 밑에 32억 딸라의 미끼로써 80억 딸라를 략탈하여 간 남조선의 현 사태이다.

물론 남조선만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가 《원조》한 세계의 모든 곳에서 그러하다.

미 제국주의가 구수하게도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이라는 이름 밑에 원조한 라틴아메리카의 페루라는 나라를 보아도 명백하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페루에서 굉장히 떠들면서 《토지 개혁》을 실시한 지도 2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농민들은 한 치의 땅도 받지 못했으며 미국의 농장주는 그냥 그 대로 있다.

특히 최근에는 페루의 농민들이 땅을 얻기 위해 투쟁에 궐기하고 있다.

또한 미제가 《진보를 위한 동맹》이란 이름 밑에《원조》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보아도 그렇다.

최근 베네주엘라 출판물은《진보를 위한 동맹》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했다.

…콜롬비아에서는 굶주림이 나날이 더 심해졌으며 아르젠틴에서는 생활 비용이 40 퍼센트나 뛰여 올라 수백만의 인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인다고.

그러므로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은 이 《진보를 위한 동맹》을 《락후를 위한 동맹》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그들의 《원조》의 결과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케네디는 목청을 돋구어 《지난 해 미국의 원조가 종전에 버림 받았던 수백만 사람들에게 집과, 희망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고 지껄이였다.

바로 이 케네디의 지껄임은 양 잡아 먹고 난 승냥이가 양의 요구 대로 도와 주었다고 부르짖는 것과 신통히도 같은 개소리이다.

이제부터 그 내막을 보기로 하자.

오늘 사회주의 나라들과 제국주의 나라들 사이에는 새로 독립된 많은 나라들이 있다. 미 제국주의는 이 나라들을 《기름진 고기'덩어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그 전처럼 마음 대로 침략하고 략탈하기는 이미 때가 지났다. 즉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이 더욱더 강화되였다. 그 영향 하에 지구 상의 모든 피착취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섰다.

미 제국주의는 이러한 시대에서 침략과 략탈을 위해 찾은 방도의 하나가 바로 승냥이의 심'보를 가진 《원조》이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그들은 이 《원조》에 사탕 발림을 하여 교활하게 남을 속이려고 한다. 즉 락후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그 나라 인민들을 먹여 살린다고 속이면서 덮쳐 잡아 먹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속이는 방법도 략탈하려는 그 나라의 실정과 때에 따라 여러 가지 구수한 말로 달리하고 있다. 마치 사탕에 파란 것, 노란 것이 있듯 그의 《원조》 에는 《경제 원조》니 《진보를 위한 동맹》이니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이니 하는 것 따위이다.

여러 가지 《원조》감투를 쓰고 나서게 된 그들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아직도 발전하지 못 한 나라에 기여 들어 가《원조》로써 자본을 투자하여 략탈과 침략의 경제적 지반을 닦으려는 데 있다.

바로 이 지반을 통하여 그 나라를 위협 공갈로 군사 동맹에 끌어 넣고 거기에 군사 기지를 만들며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반동 분자들을 추동하여 군사 파쑈 독재를 세움으로써 그 나라를 완전히 식민지화하려는 것이다. 바로 오늘의 남조선이 이와 같이 되였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적 목적에 복종시켰으며 남조선에서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완전히 폐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것이 미제가 그렇게도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는 《원조》의 내막이다.

그런즉 오늘의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가 떠드는 《원조》도 부상 당한 양을 불쌍히 여겨 그를 도와서 잡아 먹는 승냥이와 같은 것이다. 즉 이것은 약한 나라들에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멍에를 들씌우고 략탈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제국주의가 제아무리 《원조》요, 《독립》이요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침략과 략탈을 위한 기만 술책인 것이며 그의 략탈적인 본성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허황한 꿈

이상에서 우리는 미제가 허울 좋은 말로 세계의 모든 인민들을 기만하면서 략탈하는 그의 검은 배'속을 보았다.

그러나 미제의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 허황하게도 세계를 지배하는 《제패자》가 되겠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력대 조상 승냥이들이 써 먹던 온갖 전쟁 방법을 다 긁어 모아 가지고 군사적 모험 정책에 한사코 매여 달리고 있다.

그들이 우선 붙잡은 것은 이른바 《전면적 핵 전쟁》으로써 선손을 써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일거에 소멸하고 세계 제패를 위한 저들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미 조선 전쟁과 알제리아 전쟁에서 패배의 쓴 맛을 톡톡히 본 《국부 전쟁》이다.

이 전쟁 방법은 세계를 단번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저희들의 침략 목적을 하나하나씩 달성하려는 데 있다.

다음으로 놈들이 떠드는 《특수 전쟁》이다. 이는 오늘 남부 월남에서 미제가 감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주로 민족 해방 투쟁을 진압하는 전쟁이다.

바로 이상의 방법들은 미 제국주의가 있는 수단을 다하는 마지막 발악이다.

제반 사실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본성이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멸망에 가까와 올수록 더욱 발악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발악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결코 달성할 수 없으며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돌을 치는 격으로 미약한 힘을 가지고 큰 것을 먹어 보려는 무모한 망동에 불과한 것이다.

백악관에 자주 드나들어 케네디와 그 졸개들의 검은 배'속을 환히 알고 있는 미국 기자 올소프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쿠바를 공격하고 점령하자면 미국의 지상 부대의 3분의 1 내지 2분의 1을 그 자그마한 섬에 빠뜨려 넣어야 한다.

그런즉 넓고 넓은 세계를 기껏 쳐서 1억 8천만의 미국 인구로 감히 침략할 수 있는가…이 방법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미 제국주의는 우선 대포'밥을 구하게 되였다. 그것인즉 아세아에서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내세워 자기들의 《돌격대》로 만들려는 것이며 또 오늘 벌려 놓은 《한일 회담》도 그런 목적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다른 자의 손 발을 빌려 자기의 리'속을 채우려는 간교한 방법까지 다 쓰고 있다.

그런데 미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정세가 날로 조성되여 가고 있다. 그것은 미제가 이미 침략하고 있던 식민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 진영의 영향 하에 민족 해방 투쟁이 힘차게 일어 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투쟁을 진압하려고 이른바 《특수 전쟁》에 매달리였다.

그런데 이것은 새롭고 신통한 것이 아니다. 맨 처음으로 이것을 남부 월남에서 실시하였지만 지금 이 곳 인민들은 남부 월남의 3분의 2의 넓은 지역을 해방하였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에게 련일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은 두더지처럼 토성을 쌓고 방공호 속에 들어 가게 되였다.

그렇지만 케네디는 이 방법을 결코 홀시하지 말라고 부하들에게 강조하면서 중요한 방법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무너져 가는 식민지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미 제국주의는 세계 제패를 위한 자기들의 허황한 꿈을 실현하여 보려고 망상한다.

그러니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살륙과 방화, 파괴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즉 림종에 처한 제국주의자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전쟁과 침략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오늘 세계 인민의 불행의 화근은 오직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이다.





이것이 미국이다

여기는 《자유 세계》가 아니다

변 문 식



흑인 청년 챠리는 웨친다.

《…오냐, 이건 전쟁이다. 미국 인구의 십분의 일이나 되는 우리 흑인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위해 너희들 양키에게 선포하는 전쟁이다. 그렇다! 여기는 〈자유 세계〉가 아니다. 여기는 죽음의 세계다. 이 죽음의 세계를 불사르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리라!》

미국, 알라바마 주, 버밍감 시.

오월달 어느 토요일 날, 챠리는 무거운 발을 끌며 자기 집 앞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진종일 보람 없이 온 시내를 헤매다 돌아온 피곤이 자기 집 출입문 앞에 이르자 일시에 엄습한 것이다.

챠리는 멍한 눈으로 골목 안을 바라 본다. 가뜩이나 우중충한 흑인 거주 지역에 이제 저녁 어스름이 찾아드니 골목은 더 한층 음산하다. 그는 이 골목이 싫었다. 자기가 나서 스물 세 해나 자란 이 골목! 악취와 굶주린 어린 것들의 울음 소리가 들어 찬 골목!

그러나 인제 자기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야 할 방은 이보다 더 스산할 것이다.

집에 들어 서는 자기를 빤히 쳐다볼 어린 동생들의 눈이 떠올랐다. 가난과 불행에 시달리면 어린것들도 지레숙성하는 것일가?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 가신 후 별 수 없이 주부 역할을 하는 열 세 살 난 누이동생 넨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밑으로 일곱, 네 살짜리 어린 동생들이 이젠 모두 속속드리 자기 마음 속을 들여다 보는 어른들 눈인 것이다.

《오빠, 오늘두 헛걸음 하셨군요.》 말 없이 넨시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래두 할 수 없지 뭐!》 일곱 살짜리…

그러나 네 살 먹은 동생만은 참지 못 하고 자기한테 달려 와서 손도 펴보고 호주머니도 두드려 보고는 울'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넨시가

《얘야, 너 착한 애지… 오빠 지금 피곤하시다. 저기 물러 가 빨리 자라 응?…》 하고 그 애를 침대로 데려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오빠 락심마세요. 취직 못 하시는 게 뭐 오빠 탓인가요…》 하고 역시 무언의 위안을 속삭이면서 넌즈시 자기에게 걸상을 밀어 놓을 것이다.

《암, 내탓은 아냐! 살'빛이 검다는 게 왜 나나 네 탓이겠니? 구태여 탓할 데를 찾는다면 흰둥이와 검둥이, 서로 살'빛을 다르게 한 하느님한테서나 찾을가… 내 탓이 아냐, 내 탓이!》

생각하면 억울한 일이다. 그의 눈앞에는 바로 이태 전에 돌아 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 살아 계시다면 마흔 다섯이 되였을 챠리의 아버지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 때 부상당한 스미스란 버밍감시 출신의 한 백인 장교를 구원해 준 일이 있었다. 그 때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그 흰둥이를 구원해 주었던가?

아까 낮에 일'자리를 구해 어떤 운송점엘 들어 갔다 나와서 공원 앞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 떠오른다. 그 때 그 스미스의 바로 아들놈인 경관 아담 스미스는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그 놈은 자기 아버지의 은인의 아들인 자기를 알은체도 않고 경찰 곤봉으로 공원 입구의 패쪽지를 가리켰다. 《백인 이 외에는 출입 금지!》

아예 공원엘 들어 갈 념두 말라는 뜻이였다.

부지중에 탁 침을 뱉은 챠리는 그제서야 자기가 이미 어둠에 잠긴 골목 안 집 앞에서 멍청하니 서 있음을 깨닫고 출입문으로 향했다.

방안에 들어 선 그는 후유—하고 안도의 긴 숨을 내쉬였다.

넨시만이 부뚜막 곁의 걸상 한끝에 오두카니 앉았다가 일어 설 뿐 두 아이는 이미 잠이 들어 있는 것이다.

챠리는 어린 동생들한테로 다가 가서 자고 있는 모양을 들여다 보았다. 얼마나 잔잔하고 유순한 얼굴들인가!

《오빠 저녁 잡수세요.》

넨시의 목 소리에 고개를 돌린 챠리는 마치 눈이 부신듯이 짐짓 눈을 쪼프리고 식탁을 바라 보았다. 감자국과 그리고 빵이 식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챠리는 한 손에 빵을 들고 또 한 손으로 국을 뜨기 시작하였다. 두어 숟가락 뜨고 난 다음 챠리는 그 어떤 무서운 사연이라도 예기하듯 어줍게 누이 동생을 향하여 말을 건네였다.

《어디서 돈이 생겨서 빵을 사왔니?》

넨시는 살며시 눈을 내려 깔며

《제가 빨래'감을 얻어 왔어요.》하였다.

챠리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빵을 뜯어서 입에 넣었다.

그러나 입에 넣은 빵을 챠리는 씹어 넘길 수가 없었다. 억제할 길 없이 자꾸만 울음이 북바쳐 오르는 것이다.

《뼈두 미처 굳지 못 한 네가…그 가냘픈 팔로…》

가슴 속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그의 두 볼우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 도저히 살 수 없다. 살'빛이 검다는 단 한 가지 리유로 이러한 천대와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인가? 마틴의 말이 옳았어! 이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극악 무도한 인종 차별을 반대해 싸워야 한다구 했지? 식당은 물론이고 공원, 공동 변소, 정거장의 대기실, 걸상까지 흑인들 한테는 마음대로 들어 가거나 리용할 권리가 없다. …또 흑인들 한테는 일'자리를 구하는 길이 절벽으로 막혀 있고… 교회당까지도 시내 열 일곱 개소 중 세 교회당만이 흑인들에게 출입이 허락된다. …하느님도 백인, 흑인 따로 있는 모양이다. 《그럴 바에는 그따위 하느님 죄다 너희들이나 가져라, 우리는 필요 없다!》 하고 마틴은 웨쳤었다.

함께 싸울 동지들을 모으는 중이라구 엊그저께 자기를 청했을 때 자기는 왜 선뜻 그의 청을 받지 못 했던가?

골똘히 이런 생각에 잠겨 있는 그의 귀에 어딘가 멀리서 우—하고 해일처럼 설레는 이상한 소리가 불시에 들려 왔다.

《오빠,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봐요! 사람들이 막 달려 가구 야단이예요…》

창'가로 달려 가서 밖을 내다 보며 넨시가 말하였다.

《또 자동차 충돌이라도 있었나보지…그렇지 않으면 깽 소동이든지…》

《그렇다면 우리 하군 상관 없는 일이죠. 오빠! 자동차는 물론이구 깽한테 떨리울 돈도 없으니까요…》

《그래 네 말이 옳다.》

하고 두 오누이는 서로 마주 보며 웃었다.

탕—하고 깨여지듯이 출입문이 열린 것은 바로 이 때였다. 그리고 방안으로 뛰여 든 것은 말 만큼이나 무지스럽게 큰 세파트 한 마리… 사람은 개 뒤사슬에 덜레덜레 끌리다 싶



이 덩달아 뒤미처 들어섰다.

엉겁결에 넨시는 방 안쪽 침대 곁으로 달려 가고 챠리는 숟가락과 빵을 내던지며 걸상을 차고 닝큼 뛰여 일어 났다.

《꼼짝 말아라, 이 껌둥아!》

미친듯이 날치는 세파트 쇠사슬을 한 손에 쥐고 경관이 웨쳤다.

《아니 당신은 아담 스미스 아닌가?》

《아 여기가 자네 집인가…그건 그렇구 죤! (개 이름)죤! 저 검은 친구의 살 맛을 실컨 맛 보아! 쉿! 쉿!》

챠리는 허공을 껑충 날아 자기 가슴팍으로 달려드는 세파트를 두 팔로 막아 내며 부르짖었다.

《스미스! 이게 무슨 짓이야?! 무엇 때문에?!》

《너희 껌둥이들이 주제 넘게도 시위를 해?! 너두 마틴과 한 패지?…》

《…스미스! 노르만디에서 우리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 있은 옛'일을 생각해서도 이전 너무…》

스미스는 배를 출렁이며 웃었다.

《하하하하… 불필요한 옛'일은 잊는 게 좋아! 죤! 물어 뜯어라! 물어 뜯어! 쉿! 쉿!》

챠리는 필사적으로 개와 싸웠다. 얼굴, 팔, 할 것 없이 온통 피였다. 갈갈이 찢어진 웃벌 가슴팍 드러난 살에서도 피가 흘렀다.

넨시가 오빠한테로 달려 왔다. 그의 손에는 식칼이 꽉 쥐여져 있었다. 그러자 이 때까지 사람과 개의 격투를 구경하고 있던 스미스의 권투 장갑만큼이나 한 주먹이 번개처럼 넨시의 얼굴로 날았다. 꿍 소리 한 번 못 지르고 그 자리에 넨시는 쓰러졌다. 그것을 본 개는 마치 무슨 신호라도 받은듯이 닝큼 쓰러진 넨시를 넘어 뛰여 침대 우로 날아 올랐다.

잠을 깨여 일어 나서 소리도 못 지르고 바들 바들 떨면서 침대 한 구석에 몰켜 있던 두 동생의 처절한 울부짖음… 피를 본 개의 거치른 부르짖음… 껄껄대는 스미스의 너털 웃음…

× ×

버밍감시 흑인 거주 구역 사면에서 활활 불이 타번지고 있었다. 쿠.클락스.클란 악당들이 마틴을 위시해서 흑인들의 여러 집에 폭탄을 던진 것이다. 시꺼먼 연기를 뭉게뭉게 내뿜는 창문… 구렁이 혀'바닥 모양 날름거리는 시뻘건 불'길…

분분히 불찌가 날으고 초연 냄새 코를 찌르는 골목길을 챠리는 달렸다.

《마틴의 투쟁 대렬을 찾아 가야 한다! 이 원쑤를 갚아야 한다!》 하고 그는 힘을 내여 웨쳤다.

두 주먹을 부르쥐고 내닫던 그는 불시에 가슴에 벅찬 타격을 받고 뒤'재주를 넘듯이 벌렁 나가 너머졌다. 칠백폰드 이상의 압력을 가진 소방 호스의 물벼락을 정면으로 받은 것이다.

호스와 자동총, 기관총으로 무장한 소방대, 경찰대가 도처에 널려 있었다. 그러나 챠리는 굴하지 않았다. 날쌔게 옆 골목으로 빠져 나갔다. 마틴의 대렬을 찾아야 한다! 일찌기 마틴의 청을 듣지 않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곳곳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쓰러진 흑인 녀성의 목덜미를 구두'발로 짓밟고 있는 경관… 흉악한 백색 두건을 뒤집어 쓴 쿠.클락스.클란 악당배들이 극악한 짓을 도모하는 화로'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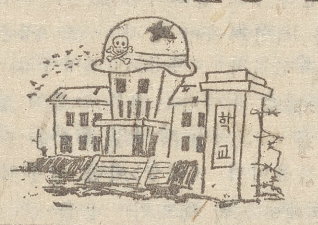
그러나 흑인들도 그냥 있지 않았다. 돌이 날으고 벽 돌장이 날았다.! 몽둥이가 원쑤들의 골사발을 후렸다.! 그들에게는 손에 잡히는 것이 곧 쟁기였다.

경황 없이 달려 가면서도 챠리는 두 주먹을 높이 휘두르며 목청껏 웨쳤다.

《오냐, 이건 전쟁이다.! 미국 인구의 십분의 일이나 되는 우리 흑인이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위해 너희들 양키에게 선포하는 전쟁이다. 그렇다! 여기는 〈자유 세계가〉 아니다. 여기는 죽음의 세계다. 이 죽음의 세계를 불사르기까지 나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리라!》



남반부 청년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반공 도의 교육》의 반동적 본질



김 관 호

미제의 직접적인 조종 하에 정권을 장악한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은 붕괴에 직면한 저들의 파쑈 테로 통치를 유지해 보려고 집권 초기부터 〈인간 개조〉라는 미명 하에 학원에 대한 파쑈화와 군사화를 보다 강화하면서 미제와 군사 〈정권〉에 대한 청년 학생들의 반항을 무마하려고 획책해 왔다.

놈들은 〈반공 도의 교육〉을 교육 부문에서의 〈인간 개조〉의 중요한 고리로 간주하면서 그를 가일층 파쑈화하였으며 청년 학생들을 우매화하려고 날뛰고 있다.

그러면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반공 교육〉의 기본 내용과 반동적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문'자 그 대로 공산주의 사상과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허위적 중상과 비방으로 일관되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건설의 거대한 성과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로하여 그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파쑈 테로 통치를 반대하여 생존의 권리와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미제와 그 주구들은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전파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떼내고 저들의 군사 파쑈 독재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산주의 사회를 〈독재 사회〉라고 허위 날조 기만하면서 그들에게 남조선의 정치 제도를 가장 〈민주주의적인 제도〉라고 설교하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그들이 설교하는 것과는 정 반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야말로 인민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최대한으로 발양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이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은 누구나 다 국가 관리 운영에 참가하며 먹고 입을 근심 걱정 없이 유족하게 살고 있다. 이것은 오직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지주, 자본가의 리익을 옹호하며 매국 배족을 일삼는 〈군사 정권〉이 수립된 남조선에서 인민들에게는 생존의 권리와 자유가 유린되고 기아와 빈궁, 정치적 무권리만이 강요되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도 쓰고 있는 바와 같이 무참히 〈짓밟힌 생명과 인권〉, 〈미증유의 고난에 빠진 경제〉, 〈극심한 물가고〉와 〈쌀 기근〉 거리를 차고 넘치는 실업 대군, 리 승만 통치 때 보다도 〈몇 배나 더한 부패와 범죄〉, 바로 이것이 군사 파쑈 통치가 빚어낸 후과이며 〈민주주의 제도〉라고 자칭하는 남조선의 현실이다.

또한 군사 파쑈 도당은 〈맑스주의를 리론적으로 극복〉한다고 하면서 과학적 공산주의 학설의 〈불합리성〉, 〈모순성〉을 집요하게 선전 침투시킴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계급 사회의

모순과 그의 발전 과정을 옳게 인식할 수 없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고등 학교 <사회 생활과> 교과서 <정치와 사회>에서는 맑스의 잉여 가치설을 론하면서 《자본이란 것은 한갖 로동자로부터 착취한 잉여 가치라고만 볼 수 없으며 《근검 절약》하여 모은 것도 있고 《부조(父祖)로부터 상속》받는 것도 있다.》고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화폐 그 자체는 자본이 아니며 오직 다른 사람의 로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리용될 때 비로소 자본으로 된다는 맑스의 자본에 관한 정의를 란폭하게 외곡하여 로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은페하며 맑스주의의 <불합리성>을 설교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제 아무리 맑스-레닌주의를 외곡 비방하여 <불합리성>과 <모순성>을 설득시키려 하여도 100여 년에 걸쳐 혁명적 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검증된 과학적 공산주의 리론은 불패이며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미치는 혁명적 영향력을 그 무엇으로도 막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서 군사 파쑈 도당은 <반공 교육>을 <국력과 련결되는 국민 체위 향상>과 결부시켜 진행하고 있다. 놈들은 <학생 특수 체육 위원회>를 조작하고 대학생들에게 락하산, 구라인다 등 군사적 성격을 띤 훈련들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도 군사 훈련단>에 대학생들을 강제 인입하여 방학 기간을 계기로 군사 훈련을 강요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반공 교육>을 한갖 교육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 학생들을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직접적인 전투에로 내몰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 학생들의 리성적인 사고력을 배양하는 지'적 교육보다 맹목적인 굴종을 설교하는 <도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적 교육보다 도덕 교육의 강화>가 학교 내에서 <인간 개조>의 방침으로 되여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들이 고창하는 <도의 교육>은 <반공 교육>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반동 철학가 죤 듀이의 실용주의 도덕 교양론에 기초하여 리 승만 도당의 <3 대 교육 방침>의 재현으로서 <반공> 사상과 함께 계급 협조 사상을 비롯한 각종 부르죠아 사상 의식을 주입하려는 데 있다.

그러면 <도의 교육>의 기본 내용과 그 반동적 본질은 어떤가?

그들은 <인격 도야>를 위하여서는 <초등 교육으로부터… 자유, 평등, 박애 사상을 철저히 넣어 주어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그런데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이며 군사 파쑈 통치가 지속되는 남조선에서 <자유>, <평등>, <박애>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약육 강식의 승냥이 법칙이 지배하는 미국식 자유이며 <평등>이란 빈부의 근본 원인을 은페하는데 편리한 평등이며 <박애>란 종교 의식에 사로잡힌 노예적 굴종을 설교하는 것임은 재언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중등 공민》 3권에다는 《민주주의 리상》이라는 제목 하에《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느니 《민주 정치》란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한다느니 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마치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 지는듯이 쓰고 있다. 만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된다면 미국은 이미 빈부의 차이가 없고 모든 사람이 법률 앞에서 평등한 《만민 복리》의 나라로 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만민 복리》의 나라인 것이 아니라 인종 차별이 심하고 부자에게는 천국이고 빈자에게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순전히 미국만 믿으면 그래도 무슨 《살'길》이나 있는듯한 환상을 가지게 하기 위한 데 불과하다.

그러나 제반 력사적 경험이 말해주듯이 남조선 인민들의 살'길은 미국을 믿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침략적인 《원조》를 배격하고 자주 자립하는 길이다.

또한 군사 파쑈 도당은《민족적 협동 의식의 배양》이라는 미명 하에 학생들에게 《로자 협조》 사상을 침투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여러 나라들에서 로동 계급의 강력한 경제 및 정치 투쟁의 산물인 기업주와 로조간의 단체 계약이 마치도 자본가들이 《로동자를 위하여 그들의 리익을 페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러한 《관용》은 《특히 로동자들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므로 자본가에게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삯을 더 높이고 생활의 안정을 얻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교하고 있다.

그들은 학생들에게 《민족적 협동 의식의 발양》을 강요하면서 《고용주에게 너무나 많은 임금을 요구하면 리윤의 축적이 불가능하게 되여 고용주는 기업을 유지할 수 없다. … 그러므로 피고용인은 기업의 리윤이 확보되여 기업이 발전되도록 기업주에게 협력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갑언 리설로써 군사 파쑈 도당은 청소년 학생들에게 현재의 비참한 처지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상을 불어 넣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가의 가혹한 착취를 옹호하고 그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사회 경제 제도의 개혁이 없이 다만 로동에 대한 태도만을 달리하고 근면하게 일만 잘하면 빈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듯한 환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이 못사는 원인이 《자주 자립 정신이 없고 의심과 게으른 탓》이라고 인민의 기개를 모독하면서 《근로 정신》, 《건설 정신》을 《함양》하여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그들의 교육의 기만성은 이른바 《준법 정신의 함양》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국민 학교 교과서 《사회 생활》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의 규약이나 법률을 자진하여 지키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다. 그런데 현존 남조선의 법률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반공법》과 《외자 도입 촉진법》, 《해외 이주법》을 비롯한 3천여 건의 각종 《법》이 밖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팔아 먹고 안으로는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 학살하는 반인민적 행위를 합법화한 악법들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의 《준법 정신의 함양》이란 파쑈적 군사 통치 질서에 무조건 순종할 것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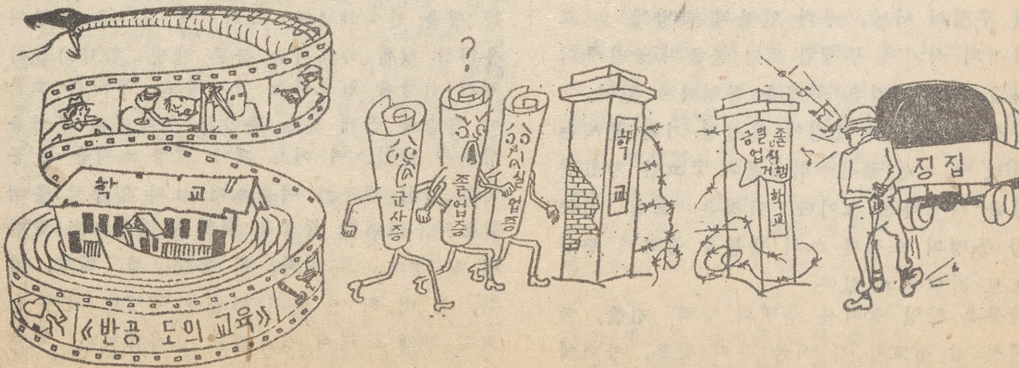
이상에 지적한 《반공 도의 교육》을 청소년 학생들에게 강요함에 있어서는 교수를 비롯한 교내 활동 외에 광범한 교외 활동을 통해서까지도 광범히 진행하고 있다. 그러한 실례로서는 초, 중등 학생의 경우에는 주로 <애국 유족 부활 운동>, <반공 전적지 답사> 그리고 고등 대학생의 경우에는<웅변 대회>, <반공 방송 경연 대회> 등을 조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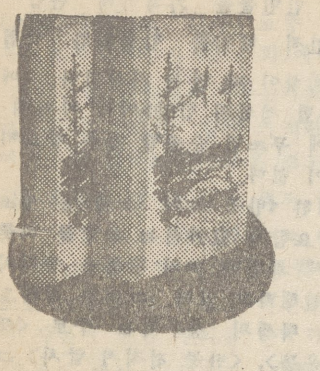
이와 같이 군사 파쑈 분자들은 《반공 도의 교육》으로서 남조선 청년 학생들을 자기들의 매국 배족적 목적에 리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그들의 절대 다수는 적들의 기만적인 《반공》 선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 청년 학생들의 행복한 생활을 동경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로 말미암아 경제는 파산되고 인민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였으며 민주주의는 그 흔적조차도 찾아 볼 수 없이 유린 말살되여 실로 남조선은 암흑의 땅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로 하여금 《반공》에로가 아니라 평화적 통일에로 공화국 북반부에 의거하는 길로, 자주 자립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 파쑈 도당이 《반공 도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어떤 술책을 다한다 하더라도 결코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열렬한 혁명가들의 생동한 화폭

박 달 저 《서광》 (2)에 대하여

김 재 하

최근 민청 출판사에서는 박 달 동지 저 《서광》 (2부)을 출판하였다.

이 작품은 1930년 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영광스러운 투쟁의 기록이며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일생을 바쳐 싸워 온 불굴의 혁명 투사 박 달 동지께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긴 불멸의 저작이다.

《나는 무엇으로든지 나의 심장이 고동치고 내 혈관 속에 피가 뛰고 있는 한 혁명을 위하여 일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

박 달 동지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한 병석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까지 붓을 들어 혁명적 정열로써 하나하나의 글'자를 적어 이 작품을 끝냈다.

《서광》 (2부)는 우리가 감격과 흥분 속에 읽은 《서광》 (1부)의 속편으로 주인공 김 성호를 비롯한 김 시욱, 리 동순 등이 김 일성 장군의 직접적 지도를 받기 위한 투쟁, 그 이의 지도 하에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조직과 피어린 투쟁의 나날, 우리 인민의 해방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투쟁한 백절 불굴의 공산주의 투사들의 감명 깊은 투쟁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중심에 설정된 기본 문제는 1930년 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신적 특징을 해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조직과 그의 활동을 통하여 중심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작품은 항일 빨찌산 부대의 장백 진출, 국내에서 김 성호와 김 시욱 등의 활동, 장백에서의 리 동순의 활동을 통하여 거대한 력사적 사변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으며 심오한 사상적 충만성으로써 우리의 심장을 틀어 잡게 한다.

작품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혁명 위업에 대한 충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위대한 정신적 풍모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공산주의자라면 곧 철창과 고문과 죽음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시기에 혁명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한다. 이 완강한 투쟁 속에 혁명 위업에 끝까지 충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위대한 풍모가 생동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일제를 타도하고 조선 인민의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혁명 투쟁은 지상의 영예이며 숭고한 임무였다. 그러기에 일제 침략자들의 총칼이 생명을 위협하여도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였고 그 투쟁 속에서 인간의 참된 보람을 느끼였으며 이 땅 우에 태여난 인민의 숭고한 생을 인식하였다. 그러기에 그들은 혁명의 유리한 정세 하에서는 물론 일제 침략자들이 검저 선풍을 일으키는 시기에도, 무서운 고문이 목숨을 끊게 하는 준엄한 시각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어느 때나 혁명 조직을 눈'동자와 같이 귀중히 여겼으며 그의 임무에 충직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혁명적 열정으로 충만된 김 성호, 김 시욱, 리 동순, 김 철주, 김 현, 권 벽, 허 만 등의 형상을 혁명을 위한 조직적 투쟁 속에서 심오하게 묘사하였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작품은 조선 인민의 수령 김 일성 장군과 조선 혁명 및 조선 공산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심오히 밝히고 있다.

《나는 이번 정말 훌륭한 분을 뵈였소. 정말 놀라운 혁명의 령도자를 만나 봤소.》

이것은 김 일성 장군을 처음 뵙고 돌아 와 김 시욱에게 하는 성호의 말이다. 수령에 대한 다함 없는 존경과 경모의 감정은 위대한 구상을 세우고 거대한 력사적 사변을 령도하여 나가는 수령에 대한 참된 관계를 말하여 준다.

장군의 령도를 받는 투사들은 그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긍지로 여겼다. 그들은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을 조직하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일에서 그 이의 숨'결을 따라 호흡하였고 하나의 일을 하여도 그 이의 위대한 구상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고 정열적으로 하였다. 그 이의 지시, 명령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을 맹세하였으며 바로 그렇게 하면 조국의 독립과 해방과 승리의 길로 바로 나가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고 그 한 길을 향하여 고초도 죽음도 이겨 내고 싸우고 싸웠다.

이러한 특징은 장군의 형상 속에 체현된 본질적 특징에 의하여 더욱 명백하여진다.

항일 무장 대오를 조직하시고 조선 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일제 침략자들에게 불벼락을 안기고 조선 인민에게 자유와 해방의 서광을 밝혀 주신 김 일성 장군의 형상은 수령과 혁명, 수령과 인민과의 통일에 대한 심오한 관계를 밝혀 준다.

우리는 작품을 읽으면서 빨찌산 부대가 장백으로 이동하고 보천보를 치고 간삼봉 전투에서 왜놈들을 족치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왜놈에게 무리죽음을 주고 조선 인민에게 투쟁과 승리의 신심을 안겨 준 항일의 명장이시며 탁월한 전략가로서의 장군의 모습을 보게 된다.

특히 조선의 혁명 정세, 국제 혁명 정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밝히고 위대한 구상을 실천하여 나가는 장군의 모습을 통하여 작품은 혁명의 령도자, 당의 령도자이며 조선 인민을 투쟁에로 부르고 승리에로 이끈 그 이의 위대한 정신적 풍모를 뚜렷이 보여 준다. 투사들의 심장을 파고 든 그 이의 말씀, 모든 리론적 문제들과 애매했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리게 하고 혁명적 열정으로 충만되게 하였으며 투사들의 심장을 더욱 들끓게 한 그 이의 말씀, 오직 그 이께서 가리켜 주신 길을 따라 막을 수도 없고 꺾을 수도 없는 혁명적 정열에 충만되여 싸워 나가는 투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혁명의 령도자로서의 장군의 모습이 밝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장군의 고결한 인간성과 혁명 동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절절한 동지애와 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를 진정으로 존경하고 령도자로 모시고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견인력이다. 이것은 복잡한 혁명 정세를 투철히 판단하시고 혁명의 앞길을 밝히고 투쟁의 명백한 방도를 제시하여 주신 수령의 위대한 정신 세계와 혁명가적 풍모를 말하여 준다. 또한 그것은 수령과 그의 전사들과의 관계를 폭 넓게 보여 준다.

혁명의 수령과 그의 전사들, 및 인민과의 통일에 대한 문제는 성호를 비롯한 주인공들의 형상을 통하여 심도'깊게 반영되고 있다.

성호를 비롯한 주인공들의 생활은 혁명을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였으며 혁명을 위하여서라면 그것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서슴 없이 수행하는 완강성으로 충만되고 있다. 그는 일제의 눈을 속여 가면서 혁명의 씨앗을 뿌리며 혁명의 동지들과 련계를 맺으며 항일 무장 투쟁 부대와의 련계를 맺기 위하여 노력한다. 고난의 투쟁 속에서 그렇게도 열망하던 빨찌산 부대와의 련계가 이루어지고 특히 김 일성 장군과의 상봉은 그의 혁명열을 더 없이 고무하였다.

김 일성 장군께서 제시한 조선 혁명에 대한 명확한 전망, 명철한 투쟁 방도로하여 그는 그 이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억제할 수 없었으며 혁명 위업에 투신할 것을 마음 속 깊이 맹세하였다. 혁명 군대의 씩씩한 모습, 혁명 군대를 조직하고 지휘하시며 조선 혁명의 앞길을 투철히 내다 보시고 위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명확한 투쟁의 방도를 제시해 주신 김 일성 장군의 지도는 성호에게 투쟁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 놓았다.

그는 혁명 동지들인 김 시욱, 리 동순 등과 함께 활기 있게 혁명 투쟁의 새로운 길에 들

어 선다. 여기서 작품은 혁명가—공산당원인 그들의 정신적 특질과 혁명적 활동을 감명 깊게 보여 준다.

그는 장군의 지시에 따라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을 조직하고 혁명 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불면 불휴의 투쟁을 한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수령과 그의 전사, 혁명 조직과 혁명 전사와의 관계가 밝혀진다. 이것은 작품에 일관하여 밝혀지고 있으며 투사들의 정신적 풍모를 한층 두드러지게 한다.

성호는 생산 유격대를 조직하고 빨찌산 부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전우들과 함께 수령의 지시에 충실하였고 혁명 조직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한다. 일제의 검거 선풍이 불자 그들은 일시 망명 생활을 한다. 이것은 결코 투쟁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더원 철산 광산, 신포 부두 로동자들 속에서도 동지들과 함께 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반일 조직을 결성하였으며 조직의 결정 대로 적들에게 체포될 때까지도 싸웠다. 심지어 그들은 일제와 같은 야수적 침략자들의 재판정이나 감옥에서도 싸워야 했고 오직 싸움으로써 시대가 제기하고 인민이 해결하여야 할 혁명 임무에 충실하였다. 작품은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특질을 일제의 살인적 고문을 이겨 내고 옥중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며 공판정에서도 싸우는 성호와 그의 전우들의 형상을 통하여 보여 준다. 그들은 살인적인 고문에 운신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자기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투쟁하였고 이 투쟁을 통하여 생의 보람을 느꼈으며 이 땅 우에 태여난 인민의 지상의 과업을 수행하여 나갔다. 그들은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장군의 전우, 혁명 전사로서의 영예를 지켰다. 따라서 이러한 투쟁에서 밝혀진 혁명 정신의 심오한 탐구에 의하여 성호와 그의 전우들의 이여의 특징도 뚜렷하여진다.

성호와 그의 전우들은 원쑤들이 제 아무리 폭행을 감행하여도 그것은 결코 발악에 지나지 않으며 원쑤들의 허약성과 멸망의 불가피성을 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었다. 이리하여 작품은 혁명의 승리와 원쑤들의 패망을 확신하고 어떠한 역경에서도 락관적으로 살며 혁명적으로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을 다방면적으로 보여 준다.

《서광》 (2부)는 자기의 특징적인 성과로 하여 우리 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전투적이고 풍부한 것으로 되게 함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지적되여야 할 것은 작품이 체현하고 있는 투철한 혁명 정신과 시대의 본질적 문제에 대한 진실한 반영 및 전형 창조에 대한 문제이다.

박 달 동지는 투쟁의 참가자였으며 그의 주인공이였다. 작가이기 전에 먼저 열렬한 혁명가— 애국자였기에 그는 자기의 투쟁을 작품화할 수 있었고 혁명적 열정으로 하여 작가로 될 수 있었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공산주의 사상으로 일관된 작품의 높은 사상성은 작가의 열렬한 혁명 정신의 소산이다.

작품은 조선 인민과 일제 침략자들 간의 타협할 수 없는 갈등을 일관하여 끌고 나가면서 조선 인민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하며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싸웠는가를 진실하게 밝혔다. 침략자들의 탄압과 학살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조선 인민은 싸워야 하며 싸워서 승리하리라는 것을 생활의 진실에 대한 심오한 탐구와 전형적 형상을 통하여 감동 깊게 보여 준다.

작품에서 갈등의 예리성과 심각성, 주인공들이 겪은 준엄한 투쟁의 시련도 시대의 진실을 반영하며 주인공들의 불굴의 혁명 정신을 밝히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슈제트 전개의 긴장성, 간결하면서도 사상의 혁명성과 그의 명료성을 말하여 주는 언어도 준엄한 투쟁을 겁내거나 회피하지도 않고 맞받아 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을 밝히는데 적응하며 이 작품의 특성을 뚜렷이 한다.

《서광》은 1930년 대 조선 인민의 생활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를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의 혁명 정신을 높은 경지에서 밝혀 내고 계급 사회의 모순과 조선 인민의 민족적 계급적 원쑤들의 본질을 날날이 폭로함으로써 인민 대중에 대한 계급 교양의 훌륭한 교과서로 된다.



어디엘 가나 우리는 당의 품' 속에 있다

공훈 체육인 신 금 단



머슴'군의 딸로 태여난 나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한 선반공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공훈 체육인으로, 세계 기록 보유자로 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 나게 된 것은 과연 누구 때문일가?

나는 늘 국제 경기에서 내가 새 기록을 세울 때 《투쟁에서 세련된 위대한 당과 현명한 수령의 령도가 가져 온 필연적인 결실》이라고 하면서 부러워 하던 외국의 한 선수의 말을 자랑스럽게 되뇌여 보군 합니다.

2년 전 모쓰크바에서 열린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 륙상 경기 대회》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거기 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500여 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의 기대를 량 어깨에 짊어지고 나간 우리들은 오직 경기에 대한 생각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첫날 400 메터 경기에서 나는 적수들을 물리치고 단연 1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쁨 보다도 앞으로 남은 경기가 근심이 되였습니다. 한 것은 400 메터에서는 성공하였으나 바로 그 이튿날 800 메터 경기가 남아 있었으며 그런 데다 격전을 겪고난 나는 신열이 나서 몸이 노그라지는듯 하였기 때문입니다.

침실의 창문을 열어 젖힌 나는 멀리 맑은 조국의 하늘을 찾았습니다. 기대 곁에 선 동무들의 새'별 같은 눈이, 협동'벌 농장원들의 모습이 안겨 왔습니다.

(내 몸이 천쪼박 만쪼박나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기대를 어길 수 없다. 그렇다! 나는 조선 청년이다.)



어느 결에 나는 회상기책을 쥐고 1930년 대 공청원이였던 최 희숙 동지의 영상을 더듬게 되였습니다.

새 힘이 솟았습니다. 어떤 곤난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이 온몸에 솟아 났습니다!

이튿날 내가 출발선으로 나가기 전이였습니다.

지도원 동지가 흥분을 참으며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금단 동무! 조국에서 전보가 왔소. 당중앙이 동무의 전투를 축하하여 전보를 보내주셨소!》

《아, 수상님! 조선 청년의 영예를 빛내이겠습니다.》

나는 가슴 속으로 이렇게 맹세를 다지였습니다.

출발선으로 향하는 나는 벌써 조금전의 내가 아니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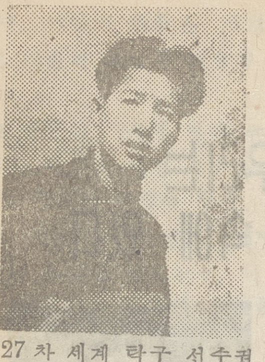
내가 800 메터에서도 1위로 테프를 끊자 외국 통신들은 나를 《위력의 화신》이라고 썼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당의 지극한 사랑을 받는 한 조선 청년인 나에게서 외국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도 나는 해마다 새 기록을 세워 조선 청년의 영예를 떨치군 하였습니다.

지난 7월 모쓰크바에 간 나는 400 메터 경기에서 종전 내 기록 (세계 기록)을 0.5초 단축하여 또다시 새 기록을 세웠고 800 메터에서 1위를 쟁취하였습니다.

수만 관중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공화국기가 하늘 높이 오르고 경기장이 떠나갈듯 박수 갈채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 때 나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당과 수령의 품'속에 사는 기쁨을 목청껏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나의 행복!

탁구 선수 박 신 일

《조선 청년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제 27 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외국의 한 선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행복! 우리 조선의 젊은 체육 선수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제 27 차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앞서 루마니야에서 국제 친선 탁구 경기가 있었다. 여기서 나는 당 체육 정책의 생활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였다.

정 길화, 김 영선 동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선수들을 련거퍼 물리치자 관중들은 경탄을 금치 못 했다.

루마니야에서 경기를 끝내였을 때다. 나는 몸이 불편하여 하루'동안 누은적이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체코슬로바키야에 도착하였다.

여기에는 우리보다 늦게 조국을 떠난 김 창호 선수도 도착하였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앉았을 때 정색한 김 창호 선수는 우리 앞에 무슨 꾸러미 하나를 소중히 꺼내 놓으며 말하였다.

《동무들, 귀중한 선물이요.》

무엇이길래 저럴가. 조마조마하여 꾸러미를 펼치자 거기에는 인삼이 들어 있지 않는가!

《동무들의 건강을 념려해서 당이 보내 주신 거요!》

이렇게 말한 창호 동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아 어머니 조국!》

나는 꾸러미를 부둥켜 않은 채 거기에 얼굴을 묻고 말았다.

인삼! 산수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정기를 머금고 자라난 자랑 높은 조선의 인삼! …수만리 이국에서도 인삼은 가슴 뿌듯이 조국의 향기를 풍겨 주고 있지 않는가.

꾸러미는 우리들의 품에서 품으로 옮겨 갔다. 우리들은 누구 하나 흐르는 눈물을 닦으려 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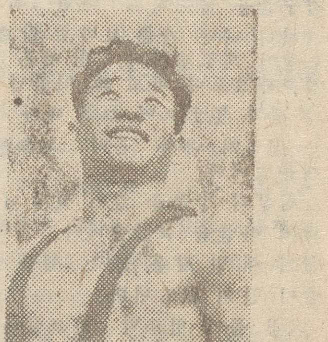
먼 길에 떠내 보낸 친자식을 념려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조국은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고 보살피고 있구나. 우리들은 조국에서 보내 준 자그마한 꾸러미를 안고 그 속에 담긴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새기였다.

당의 품'속에서 어버이 수령을 모시고 사는 조선 청년인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이 행복을 안고 탁구 기술에서 세계 패권 쟁취의 양양한 앞길을 향해 나가고 있다.

— ☆ —

조선 청년의 름름한 기상을!

체육 명수 리 흥천



우리는 아름다운 금수 강산을 두고도 자랑하지 못 하던 때가 있었다.

그 때는 조선 청년들이 훌륭한 체육 기술과 재능을 마음껏 꽃피울 수도 자랑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가?

현명한 당은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선수들에게 아낌없이 보장해 주었다.

당과 수령의 세심하고 끊임 없는 보살핌 속에 나는 대담하게 세계 수준을 향해 신들메를 조이고 밤낮 없이 훈련하였다.

내가 국제 력기 대회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모쓰크바 레닌 명칭 체육 궁전에서 수천 명 관중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나는 넓직한 가슴에 조선 청년의 궁지를 안고 경기장에 나섰다.

오늘 조선 청년들은 어디에 가나 그렇게 가슴을 떳떳하게 벌리고 나선다.

…백전백승하는 당과 현명한 수령의 령도 따라 천리마로 내닫는 조선! 이 땅에 태여난 궁지! 이것을 생각할 때 나는 두려운 것이 없었다.

경기에서 나의 차례가 되여 구간을 앞에 놓고 섰는 순간 내 눈앞에는 수상님의 인자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 위대한 영상을 그리며 조선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룩하였던가!

나는 힘이 백 배로 솟는듯 하였다.

《56 키로 그람급 용상에서 140.5 키로 그람, 조선의 리 흥천 선수 세계 신기록 수립!》

-나의 경기 기록이 확성기를 통해 경기장에 울리자 장내는 떠나갈듯한 환호로 들끓었다.

환호 속에 휩싸인 나는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우리는 위대한 로동당 시대에 사는 당당한 조선 청년이다!》라고…

《금번 대회에서 조선 선수가 세계 기록을 세울 줄은 몰랐다.》

이것은 국제 력기 련맹의 한 일'군이 우리에게 실토한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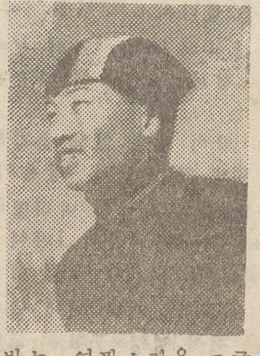
나는 국제 무대에서 조선 청년의 름름한 기상을 시위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낀다.

《당과 수령이 정확한 승리의 방도를 쥐여 주고 따뜻이 보살펴 줌으로써 우리 젊은 체육인들은 자신만만한 선수로 자라 났다.》고…

— ☆ —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조국이 있다

빙상 선수 김 진 국



나는 언제나 위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는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사는 청년임을 자랑한다.

먼 로정을 거쳐 우리가 일본 하네다 비행장에 내리였을 때다. 순간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공화국 기'발이 물'결치는 가운데 수천의 재일 조선 동포들과 일본 인민들이 우리를 마중 나오지 않았는가!

오각별 찬연한 람홍색 공화국 기'발!

비행장 상공 높이 펄럭이는 공화국기를 보는 우리는 참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먼 이국의 땅, 그것도 다름 아닌 18년 전까지 근 반세기 동안이나 우리 부모들을 억압 착취하던 그 나라의 한 복판이 아닌가! 그 때 3천만 우리 동포들은 얼마나 마음 속으로 저 기'발을 그리였던가.

오늘 우리는 당과 수령의 령도 따라 훌륭한 사회주의 제도를 가진 강력한 자주 독립 국가의 한 선수단으로 그 기'발을 안고 여기에 왔다.

우리는 궁지도 높이 경기에 출전하였다. 그러나 나는 흥분을 식힐 사이도 없이 긴장한 경기에 들어 서게 되였다.

끄 경희 선수와 그리고 국제 경기 경험이 없는 내가 미국 선수와 맞서게 되였다.

나와 맞선 미국 선수는 우악스럽게 생긴 꺽다리였다.

미국…어떻게 내가 이 수치스런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덤벼 드는 선수와 피타는 결심이 없이 대전을 할 수 있겠는가…

끝내 나는 미국 선수를 이겼다. 경기를 관람하던 재일 동포들이 달려 와 나를 공중에 들어 올렸다.

이 때 나는 미국 선수가 얼음판에 주저 앉은 채 머리만 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외국 통신들은 가루이자와에서 있은 세계 빙상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조선 선수들의 실력은 경이적이다.》라고 썼다.

우리는 먼 이국 땅이였지만 우리 동포들 속에서 조국의 어느 한 도시에서처럼 마음 놓고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대회에 왔던 남조선 선수들은 경기도 못한 채 그 대로 돌아 갔다. 나는 그들의 풀'기 없는 정상을 눈여겨 볼 때마다 그들을 무권리하게 만든 철천지 원쑤 미제에 대하여, 남조선 반동 통치배들에 대하여 끓어 오르는 분노와 증오를 금할 수 없었다.

얼마전 비률빈에 갔던 남조선 자전거 선수들이 돌아 올 로자가 없어 거지 행세로 돌아 다녔다지 않는가! 그 한 가지만 들어도 그들의 무권리와 빈궁을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당과 친애하는 수령이 령도하는 이 땅—나의 조국에 태여났음을 무한히 자랑한다.



조선의 애국 청년

남 이 장군

김 중 식

15 세기 우리 나라의 청년 명장 남 이는 자기의 시에서

칼 갈아 백두산 돌
다 없어지고
말 먹어 두만강 물
다 마르리라

사나이 스무살에
나라를 편히하지 못 한다면
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 주랴!

라고 읊었다.

청년 남 이 장군은 1441년 경상도 의령(宜寧)에서 탄생하여 소년 시기부터 큰 포부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는 소년 시기부터 항상 아버지에게서 바다를 건너 기여든 왜적과 북방 대륙으로부터 기여든 외적 때문에 우리 나라가 겪은 국난의 지난 력사를 주의 깊게 물었으며 원쑤들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위훈을 세운 수 많은 애국 명장들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들었다.

그 때마다 소년 남 이는 자기도 자라나면 강감찬, 을지 문덕과 같은 애국적 명장이 되여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우리라 다짐하면서 병학(군사학)과 병법(전술)을 련마하기에 온 정력을 기울였다.

남 이는 16 세 때에 벌써 병학과 병법에 능통하였기에 그는 17 세의 젊은 나이에 과거 무과 시험(군관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 당당한 청년 무관으로서 국방의 요직에서 활동하게 되였다.

때는 1467년 9월 남 이 장군이 26 세 되던 해였다. 나라는 압록강 건너 편에 있는 건주위(建州衛) 녀진족(女眞族)이 빈번히 국경을 넘어 와 략탈함으로써 소란해졌으며 북방 인민들의 고통 또한 심하였다.

《건주위 녀진족을 물리치고 나라를 평안케 할 장군을 선발해 올리라!》는 왕의 명이 떨어지자 정부에서는 선참으로 남 이 장군을 추천했다.

남 이 장군은 이 당시 지혜 있고 용감한 명장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차라 왕은 곧 남 이를 시켜 녀진족을 치도록 명을 내리였다.

남 이는 어 유소 장군과 더불어 1만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출진하였다. 이 때 남 이는《이번 싸움에서는 강(압록강) 건너 편에 넘어 가 녀진족의 본거지를 쳐서 영영 후환을 없이 하는 것이 상책인 줄 아오.》라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 유소 장군에게 제안했다.

어 유소 장군은 청년 남 이 장군의 제의를 지당하다고 동감하였다.

드디여 남 이 장군은 병사를 거느리고 압록강'가에 도달했다. 벌써 강을 건너 와서 로략질하던 녀진족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남이 장군은 곧 대군을 모라 강 건너 편 건주위 녀



진족의 본거지인 올미부(흥경 부근)를 향해 진격을 재촉하였다.

얼마 후 적의 본거지는 완전히 점령되였으며 적의 우두머리였던 리 만주(李滿住)란 자 역시 처단되였다.

이 싸움에서 승리의 개선을 한 후 남 이는 병조 판서(국방 대신)란 중책을 감당하게 되였다. 남 이 장군은 병조 판서로 등용된 후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물리쳐 나라를 평안케 하며 안으로는《부패를 일소하고 혁신 정치를 실시해야겠다》고 주장해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정권에 붙어 앉아 안일 부화하며 방탕한 생활과 인민들의 재물 수탈에만 날뛰고 있던 대다수 량반, 지주 관료배들을 규탄해 나섰다.

남 이 장군의 이러한 애국적이며 량심적인 처사는 대다수 보수적인 량반 관리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였다.

그리하여 남 이는 보수파들의 간악한 책동에 의하여 애석하게도 처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기개와 애국적 생애는 후세에까지 오래오래 전해 내려 오고 있다.

—☆—

청년 의병장

정 문 부

임진 조국 전쟁(1592~1598)시기 29 세의 젊은 청년으로 함경도 의병 대장이 된 정 문부는 근면하고 애국심이 강한 청년이였다. 그는 25 세 때 과거 무과 시험(무관 벼슬 선발 시험)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올라 항상 백성들을 위한 좋은 시책을 다하기에 애썼다.

그가 함경도 경성에서 북평사로 있을 때인 1592년 4월에 일본 침략자들이 20여 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우리 나라를 불의에 침입하여 왔다. 적들은 이 해 여름에 서울을 강점했으며 서쪽으로는 평양, 동북쪽으로는 회령 부근까지 기여들었다.

가등 청정이란 왜놈의 괴수가 거느린 2 만여 명의 왜놈들이 함경도에 기여든 이 후 놈들은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함경도 지역을 자기의 령지로 선포하고는 조세까지 받아 먹으려 하였다.

이 때 정 문부는 경성에 잠시 몸을 숨기면서 《이 땅에 기여든 왜적의 무리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이 땅 우에서 까마귀 밥이되게 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의병을 일으킬 준비를 은밀히 진행하였다.

정 문부는 우선 자기와 뜻을 같이 한 애국 청년 최 배천(崔配天—28 세), 지 달원(池達元—22 세)과 손을 잡았으며 그 후 지방 인민들 속에서 신망이 높던 리 봉수와도 련계를 가졌다.

이리하여 관북(함경도) 4의사(4 명의 의로운 용사)라 불리우는 함경도 의병의 지휘부가 구성되였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는 속담 그 대로 정 문부를 비롯한 4의사들이 의병을 일으킨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함경도 지역에 퍼져 갔다.

이러자 도처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어 삽시간에 3000 명에 달했다.

《과연 그렇다. 나라를 위해서는 한 목숨 바쳐 싸우기를 주저치 않는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정 문부는 이렇게 생각할 때 새 힘이 용솟음침을 느꼈다.

정 문부는 의병 총 대장으로 추대되였다. 젊은 청년 의병 대장 정 문부는 우선 왜놈들과 결탁한 역적 국 세필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경성을 해방시킬 작전을 꾸미였다.

정 문부는 처음에 국 세필을 꾀여 힘을 합쳐 녀진의 침입으로부터(당시 녀진이 자주 침입해 왔다.) 경성을 방어 하자고 제안했다. 국 세필은 당시 왜놈으로부터 벌써 벼슬까지 받은자로서 지방 인민들의 배격을 몹시 두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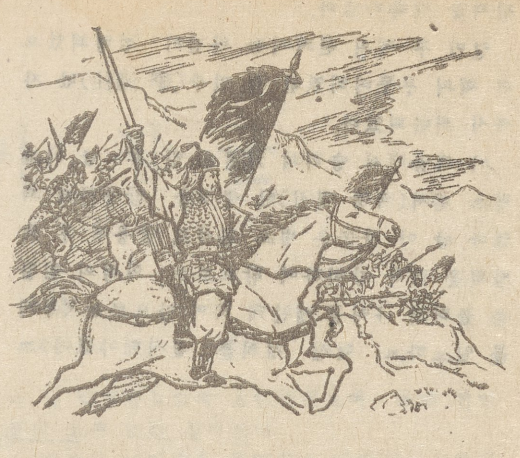
워 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정 문부가 자기를 돕겠다는 말에 너무나 반가와 그를 성안에 맞아 들였다. 그 후 어느 날 국 세필은 왜군이 성안으로 찾아 들어 오려고 하니 《성문을 열어 일본군을 반가히 맞아 들이도록 하라》고 호통을 쳤다.

원쑤들을 성안에 끌어 드리려는 역적 국 세필과 왜군을 섬멸할 때는 드디여 왔다고 생각한 정 문부는 성문을 열자 그 앞장에 서서 칼을 뽑아 들고 《왜놈들과 싸울 사람은 나를 따라 나서라!》고 웨쳤다.

명이 내리기가 바쁘게 성 내 의병들이 앞을 다투어 왜놈을 향해 돌진하니 왜놈들은 당황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한놈의 원쑤도 남기지 말라!》, 《부모처자들의 원쑤를 갚자!》 이렇게 고함치며 돌진하는 의병들에 의해 왜놈들은 소탕되였으며 국 세필마저 처단되고 경성은 해방되였다.

그 후 가등청정이란 놈은 의병들을 진압하려고 대군을 거느리고 진격해 왔으나 도처에서 섬멸 당하였다. 이듬 해인 1593년 1월에는 의병



들이 남진을 계속하여 명천, 길주를 해방하니 이로써 마천령 이북에서는 왜놈의 그림자가 없어지고 말았다.

의병들은 도처에서 적들을 추격 소멸하였기에 가등 청정이란 놈은 그 후 소수의 병사를 거느리고 경상도 울산 지방으로 도망쳐 갔다.

—☆—

농민군 대장 홍 경래

28 세의 젊은 청년으로 평안도 농민 전쟁을 조직 지휘한 《평서 대원수(평안도 지방 농민군의 총 사령관)》 홍 경래는 1784년 평안도 룡강군 세동 화장골의 어느 한 농가에서 탄생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달리 정의감이 강했으며 강한 의지와 굳은 절개를 가졌다. 그의 부모는 근면하며 효성이 지극하고 글 공부를 좋아하는 아들 경래를 장차 높은 벼슬이라도 시켜 보려고 당시 중화에서 서당(옛날 초급 학교)훈장을 하고 있던 외숙부 류 학권에게 보내 글 공부를 하게 하였다.

남달리 재주가 있었으며 포부 또한 컸던 홍 경래는 13 세 되던 어느 날 서당에서 옛날 중국에서 형가란 사람이 포악한 진나라 왕을 처단하려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감명 깊이 듣고는 그를 한없이 애석히 여기더니

가을 바람 설레이는 역수(강이름)를 건너
무쇠같은 장사의 주먹으로
백주에 함양(진나라 수도)에 가
포악한 천자(왕)의 머리를 부시리라."

라는 시를 지여 높이 읊었다.

이 시는 홍 경래가 당시의 봉건 량반 통치배를 반대하여 싸울 자기의 투지를 표현한 대담한 시였다. 그러기에 그의 외숙부는 홍 경래의 이러한 언행이 앞으로 자기에게 무슨 화를 미칠 수 있으리라 두러워하면서 경래를 그의 집으로 돌려 보냈다.

집으로 돌아 온 경래는 아버지와 이웃 마을의 선생을 찾아 공부를 계속하였다. 그는 이때부터 짬짬이 병학도 공부했으며 무술도 익혀 갔다.

그는 19 세되던 1801년에 벼슬을 바라던 아버지의 원에 따라 과거 시험을 쳤으나 평안도 사람이란 단 하나의 까닭으로 락제되였다.

그는 이 때부터 더욱더 부패 문란한 량반 세도 정치에 대해 불만을 품었으며 나아가서 원한과 울분에 싸인 인민들을 무한히 동정하였다. 그는 국내 각지를 돌아 다니면서 우선 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 보려고 하였다.

정의감에 불타며 애국의 정열로 가득찬 홍 경래는 서울과 전라도, 경상도, 함경도 등 이르는 곳 마다에서 굶어 죽어 가는 가엾은 백성들을 보았으며 량반 관료들과 지주들의 모진 학대와 고역에 시달리는 수십 만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또한 그는 술이나 마시며 풍월이나 지으면서 호의 호식하는 량반 통치배들도 보았다.

《그렇다. 기여코 역수강을 건너 함양(서울)에 쳐들어 가 천자(세도 통치자)의 목을 짤라 백성을 구원하리》 그는 이렇게 맹세했던 어린 시절을 다시금 회상했다.

청년 홍 경래는 만백성을 도탄에서 구원하기 위한 큰 뜻을 품고 우선 자기와 뜻을 같이 할 벗을 찾아냈다. 평안도 박천군 청룡사 절간에서 때를 기다리던 우 군측, 곽산에 살던 김 창시, 그 외에도 리 희저, 김 사용, 홍 총각 등은 모두 홍 경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로서 농민군의 지휘부를 구성한 동지들이였다.

홍 경래는 가산 다복동에서 금광을 한다는 간판을 내 걸고 비밀리에 농민군을 모았다. 한편 그는 평안도, 황해도, 멀리는 경기도를 포괄한 32 개의 고을에 공작원을 파견하여 일단 농민군이 일떠 서면 각지에서 모두 이에 호응 궐기하도록 하였다.

다복동에는 날마다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왔다. 그들은 거의 모두 뼈가 휘도록 량반 지주 집에서 머슴이나 소작살이 하다 결국은 살 수 없는 처지에 빠진 가난한 농민들이 아니면 빚에 쪼들려 아들딸마저 종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될 억울한 처지에 있던 가련한 백성들이였다.

이리하여 다복동에서 일으킬 거사의 준비는 시시 각각 성숙되여 갔다. 홍 경래는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한 1811년을 거사할 절호의 기회로 정했다.

1811년 12월 18일 새벽 홍 경래는 드디여 농민군의 출진을 명하였다. 이 날 밤 홍 경래는 푸른 군복에 붉은 수건을 쓴 장한 농민군 앞에서 《우리들의 원쑤는 오직 백성들을 못살게 굴며 나라의 정치를 어지럽게 하는 량반 지주들과 악질 관리놈들이요. 원쑤들을 백성들 앞에서 심판하고 관가의 재물은 마땅히 몰수하여 빈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오. 한 사람의 죄 없는 백성이라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하오.》 이렇게 타이르고 출격을 명했다.

민생을 구원하는 정의의 기'발을 높이 들고 농민군은 가산, 박천, 곽산, 정주, 선천, 철산, 룡천에서 삽시간에 악질 량반 지주들과 관리들을 소탕하였다.

이르는 곳 마다에서 인민들은 농민군에 가담하니 그의 대렬은 6~7천 명으로 확대되였다.

당시 박천을 해방하고 장차 청천강을 건너 서울로 진격할 태세를 갖추던 홍 경래는—지금 나라의 정사는 간악한 무리들에 의해 롱간되니 인민들은 류랑되고 기아에서 헤매고 있다. 이에 관서(서북도) 지방의 호걸들은 간악한 량반 지주들의 무리를 소탕하고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으며 백성들을 구원하고저 정의의 군사를 일으킨다.—라는 격문을 발표했다.

홍 경래에 의해 조직 지휘된 농민군은 청천강 이북 지역을 해방하고 이 곳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 주었으나 서울로 진격하려던 농민군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 하였다.

청년 홍 경래는 비록 어릴 때 품었던 포부 그 대로 즉 무쇠같은 장사의 주먹으로 백주에 함양 천자(수도에 있는 통치자를 말함)의 머리를 베지는 못 하였으나 자기의 포부는 대담하게 실천에 옮김으로써 계급적 원쑤—량반 지주들과 관료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청년 홍 경래의 이러한 대담 무쌍한 정의의 거사는 후에까지 우리 인민들과 청년들의 깊은 사랑과 존경을 받아 오게 하였다.





취미에 대한 말

편 집 부 앞

우리 청년들 속에서는 가끔 취미에 대한 말들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취미가 무엇이며 사람들에게는 취미가 하나 밖에 없다거나 혹은 많다거나 하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모르게 우리 청년들의 생활에서 취미란 것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편집부에 문의합니다.

취미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가지 취미에 전심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가 고상한 취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황해남도 재령군 민청원　　박 철순

— ☆ —

편집부는 박 철순 동무의 질문과 관련한 최 원종 동지의 글을 아래에 게재한다.

청년 시절의 취미- 그것은 청년들의 사상 도덕 수양에 큰 영향을 주며 그의 희망과 리상을 구현하는 걸음 걸음에 의욕과 정열과 힘을 줍니다. 그러므로 청년 시절에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그 취미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자못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미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는 것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 그것을 상세히 알려고 하며 거기에 의욕을 가지고 접근하며 그것을 소유하려 하는 지향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취미를 가지게 되면 흔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하려는 희망을 가지며 따라서 적극적인 탐구 활동을 동반하게 됩니다.

실례를 들어 봅시다. 장차 농학자가 되려고 지향하는 청년은 자연히 농사에 대하여 취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청년은 자기 지방에서 자라고 있는 농작물의 성장 상태를 알아 보려고 하며 농업에 대한 책을 읽거나 이야기를 듣는데 열중하며 농작물 재배에 적극 참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취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에는 항상 경쾌하고 즐거운 기분을 가지게 되며 오래 끌어도 지루한 줄 모르며 적극적으로 자기의 정력을 바쳐 그 일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모든 청년들이 좋은 취미를 가지는 것이 그 청년의 발전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사람마다 그 취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생활 환경, 성격, 혁명 과업, 직업 등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의 취미는 그의 성장 발전에 따라 부단히 그리고 질적으로 변하며 다양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긴 설명이 없어도 다 리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청년 시기에는 어떤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바로 청년

시기에 공산주의 세계관을 확립하며 사상, 도덕 수양을 쌓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신을 준비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가져야 할 취미는 응당 여기에 복종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례외없이 자기의 공산주의 사상, 리론, 도덕 수양에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에게 부과된 혁명 과업을 질량적으로 더 잘, 더 많이 수행하려는 열망으로 충만되여 있습니다.

바로 여기로부터 매개 청년들의 취미의 대상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 과학에 관한 도서를 탐독하며 그것을 발취하여 학습하는 것이라던가 과학 기술 서적을 읽는데 몰두하여 과학 기술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지식을 축적하는 일 그리고 문학 서적 독서를 통하여 자기의 문화 정서적 소양을 높이는 일 등 독서에 취미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음악과 미술, 조각과 연극, 영화들에 취미를 가지며 체육 활동에도 건전한 오락에도 적극 참가하는 일들도 청년들의 정서와 문화 수준을 높이며 신심을 단련하는데 유익한 취미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서나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준비하며 맡겨진 혁명 과업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돌려지는 관심과 취미—이것을 우리는 가치 있는 고상한 취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시절의 취미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괴상한 《멋쟁이》 차림에 몹시 관심을 돌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머리칼도 지어는 눈섭도 유다르게 합니다. 그는 이런 용모와 차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모와 차림은 조선 사람의 정서와 미풍에도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분위기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깨끗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차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괴상한 《멋쟁이》, 건전치 못한 오락 등등에 대한 《취미》는 낡은 부르죠아 사회의 유물이며 잔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 악취미라 하며 이것이 청년들의 배격을 받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잔재를 청산하는 동시에 썩어져 가는 부패한 자본주의의 냄새 풍기는 각종 패덕과 악취미, 온갖 부르죠아 사상과 부르죠아 생활 양식의 침습을 반대하여 계속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취미에 대한 일부 부정확한 견해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어떤 청년들은 말합니다. 《각자에게 특특한 취미가 있고 자기 마음에 드는 일에 취미를 가지는 데 구태여 남의 취미에 간섭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고…

물론 다른 사람의 좋은 취미에 대하여 존중해야 하며 그것을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취미란 전'적으로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취미가 개인의 주관적 욕망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라면 세상에 어느 것이 아름답고 고상하며 어느 것이 나쁘고 저속한 것인가를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취미, 저속한 취미라고 하는 거기에는 벌써 그 자신과 우리 혁명 위업에 리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르죠아 사회의 오물을 그냥 둘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런즉 저속한 악취미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하는 것이 응당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시절에 취미를 어떻게 키워 나가는 것이 좋은가를 보기로 합시다.

청년 시절엔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구요. 지금 당은 우리 나라 청년들이 로동 계급의 참된 전사로,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준비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청년들의 훌륭하고 전면적인 발전은 매우 넓은 취미를 전제로 합니다. 취미

가 협소하다면 정신 생활의 풍부한 내용은 기대할 수 조차 없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자기의 취미와 지식의 범위를 어느 한 측면에 국한시키고 《나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폭 넓은 취미— 이것은 인간의 전면적 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과학적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맑스는 어떤 격언이 마음에 드는가라는 자기 딸의 질문에 《〈인간 만사는 다 나의 관심사다.〉라는 격언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18 세기의 이름 높은 실학 사상가이며 백과전서적인 학자인 정 다산 선생은 실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취미의 결핍과 빈곤은 필연코 생활을 무미건조하고 내용 없는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은 흔히 어떤 강한 외부적 자극이나 신기한 일이 벌어져야 그 일에 열중하며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면서 언제나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문학, 예술, 체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의 취미의 령역을 부단히 넓혀 생활을 언제나 활기와 랑만이 충만되도록 하며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자신을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진다는 것은 결코 어떤 한 개의 중심적인 취미를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들은 다양한 취미를 가지는 동시에 반드시 어떤 중심적인 취미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과학과 기술, 예술과 체육 등 많은 것에 넓은 흥미를 가지는 동시에 그 어느 것에 중심적으로 취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취미 중에는 활동 행정에서 발생하고 그 활동이 끝나기만 하면 살아지는 일시적 성격의 취미와 견고한 취미가 있습니다.

선반공이 오락에 대한 취미와 자기 직업과 관련된 취미는 서로 다릅니다. 오락에 대한 취미를 례를 들어 보면 직업적 장기 선수 아닌 선반공의 장기에 대한 취미는 장기판을 떠나면 살아지고 그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선반공의 자기 직업과 관련된 취미는 아주 확고합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선반 기대와 선반 작업에 일상적 관심을 가집니다. 선반공에게는 벌써 확고한 직업적 태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 중에는 많은 대상에 취미를 가지지만 계속되지 못하고 한 취미가 다른 취미에로 곧 교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사리 교체되는 확고치 못한 취미가 그 사람의 특징으로 될 때에는 결함으로 나타납니다.

례를 들어 어느 한 가지 일에도 계속적인 취미를 가지지 못하고 이것 저것 산만하게 다쳐 보면서 직업을 자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확고한 취미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떤 활동에서나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상한 취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청년들은 우선 고상한 취미가 무엇이며 고상하지 못 한 취미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혁명 과업 수행과 관련된 부문의 취미, 공산주의적 수양과 학습과 관련한 취미와 오락에 대한 취미가 서로 같은 정도이거나 오락이 더 우세하다면 그의 취미를 우리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청년들은 취미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낡은 취미, 저속한 취미들을 일소하며 고상한 취미를 적극 키워 나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계급 의식을 마비시키고 건전한 생활을 부화 타락하게 하며 사람들을 안일하게 만드는 각종 부르조아 생활 양식을 증오하며 타개하며 그와 류사한 사소한 현상과도 타협 없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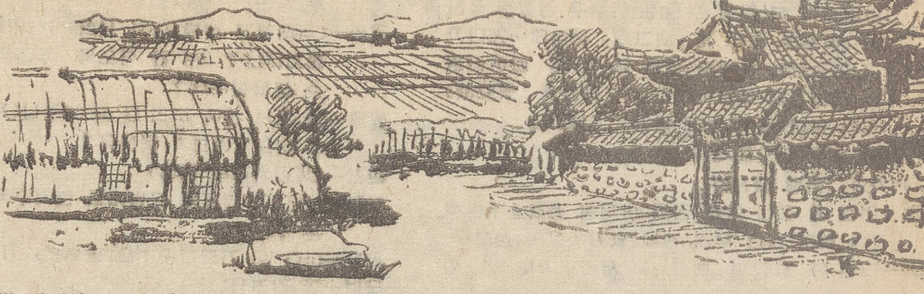
그러고 고상한 취미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하며 침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확고하고 공고한 것으로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독자문예

불'길이 타오른다

짧은 극



때와 곳—해방 전 어느 한 농촌

인물; 창덕—(17 세)

리씨—그의 어머니(50 세)

금녀—그의 누이(20 세)

곽가—지주(45 세)

월매—그의 처(35 세)

순돌—지주의 머슴

마을 사람들…

무대—가난한 살림을 보여 주는 리씨네 집 우측 고래등 같은 지주 집의 롱마루와 토담이 보인다.
그 옆에 풍년 든 벼리'벌이 안겨 온다.

△막이 열리면 리씨 토방에 맥 없이 앉아 헌 토스레 옷을 깁고 있다. 이 때 창덕이 벼 반가마니를 메고 들어 와 신경질적으로 팽때 꽂는다.

리씨—이게 웬거냐?

창덕—(씨근거릴뿐)

리씨—입이 붙었냐?

창덕—(가마니 우에 털썩 주저 앉으며) 개새끼들…

리씨—그래 스물 네 가마니나 되던 벼는 다 어쩌구 반 가마니냐?

창덕—다 잘렸어요.

리씨—다 잘리다니? 소작료에 절반 잘린다 쳐두…

창덕—장리 좁쌀 두 말 꿔 먹은데 벼 한 가마니, 봄에 어머니가 앓을 때 주던 피쌀 한 말에 벼 반가마니…

리씨—아니 그건 거저 준다구 지껄이구서…

창덕—내 아나요? 지주놈의 심'보가 그런 걸 그리구 수세, 터세, 굴뚝세, 말뚝세…다 회계하구 남은거야요.

리씨—(풍덩 물러 앉으며) 날도적놈의 세상!
초가을부터 말려 죽일 셈이구나.

창덕—인젠 금녀 누님두 다 데려 왔어요.

리씨—금녀 농사가 잘 되면 찾아 오려 했더니… 어휴

창덕—에익, 분해서…어머니 내 절구에 벼를 찧을가요? 오늘 저녁만은 밥해 먹자요.

리씨—……

△ 곽가 장부책과 수판을 들고 등장.

곽가—마침 잘 왔군, 아까 회계를 삭갈려서 저 벼 반가마니마저 내야겠네.

리씨—아니, 그래 거저 준다던 피쌀 변까지 죄 털어 내고 무엇을 또 가져가려구 그러오?

곽가—하아! 이래서 탈이라니 저 금년 여름에 보리 심었던 밭 소작료도 있고…

창덕—거야 들각담 추구 심은 건데요 뭐.

곽가—그래두 내 땅이 아니냐? 그리구…

창덕—그리구 또 뭐요?

곽가—물'세가 있지

리씨—물'세라니요?

곽가—그래 임자네 물 없이 농사졌나?

창덕—우린 주인'집 물'고에서 쓴게 아니라 샘에서 흐르는 물 썼어요.

곽가—하, 이 놈 그 샘도 내 땅에서 흐르니 내 것이지.

창덕—못 갚겠어요.

곽가—저, 저, 저 놈 봐라!

리씨—그래 두 식구를 말려 죽일 셈이유? 너무하워 다 너무해!

곽가—허, 이젠 배짱까지 쓴다? (성이 나서 집 쪽을 향해) 야, 순돌이 있느냐?

순돌—(뜨적뜨적 들어 온다.)

곽가—(순돌에게) 어서 이 벼'가마니를 메라.

순돌—(마지 못해 하며) 이것까지야 원 어떻게…

곽가—이 놈 냉큼 메고 가지 못해?

리씨—주인님, 이 번만 사정 봐 주시유. 그래 마당질한 날에 굶어야 하겠수? 저 철 없는 게 일년 내내 애써 지었는데 밥이나 한끼 해 주게 사정 좀 봐 주시유.

곽가—호—응! 그런 사정 다 봐 주다간 본전도 못 찾겠다. (순돌에게 벼'가마니를 메워 주고) 어서 걸어! (퇴장)

창덕—에익, 개새끼! (기둥에 박아둔 낫을 뽑아 들고 쫓아 나가려는 것을 리씨 막는다.)

리씨—너 정신 있니? 그만 두어라 (낫을 빼앗으려다.)

창덕—놔요, 내 그 놈 죽이고야 말겠어요.

리씨—얘, 이 에미 속 좀 작작 태워라.

창덕—에익, (낫을 내 동댕이 친다.)

리씨—(낫을 쥐며)어쩌문 너까지 네 애비의 성밑 그렇게두 닮았냐.
아버지가 분'김에 저 놈과 다투구 경찰에 끌려가 매맞아 죽은 게 엊그제 같은데…게다가 그 이듬해엔 아버지 있을 때 진 빚 값이라면서 금녀까지 빼앗아 가구…(눈물을 씻으며) 어서 들어 가 쭉정이 벼라도 다듬자.

△ 리씨, 창덕 안으로 들어 간다.

△ 곽가와 월매 나온다.

월매—여보 저 금녀 년을 글쎄 어쩌면 좋겠소? 이젠 차츰 철이 드니 우리 집에 있기 싫어 한다우.

곽가—그런 년 없으면 때라나, 서푼어치도 안 되는 년.

월매—그래두 머슴년치구 그 년처럼 녹거리가 어디 쉬워요? 그러지 말구 그 년이 금반지를 훔쳤다구 소문 내구 그 값으로 더 부려 먹읍시다레.

곽가—허, 허…그 꾀가 아주 용한데, 임자도 중학교를 헛다니진 않았군.

월매—(아양을 부리며) 아무렴 당신만 못할가, 어서 집으로 가자요, 날씨가 서느러운데 감기 들겠어요.

△곽가, 월매 퇴장.

△날이 저문다.

금녀—(비칠거리며 토담 있는데로 나온다.)

△리씨 (집에서 나와 나무'단 안고 울안으로 들어 가려다가 금녀를 보고)

리씨—거 금녀 아니냐?

금녀—어머니! (울먹인다)

리씨—(말 없이 금녀를 어루만진다.)
에구. 얼굴이 왜 이렇게 퍼렁게 되였니 쯧, 쯧…또 매를 맞은게로구나.

금녀—어머니, 난 이젠 그 집에 더는 못 있겠어요.

리씨—오냐. 그래라, 이젠 쭉정일 먹더라도 같이 살자. (눈물을 씻는다.)

금녀—어머니 울지 말아요.

리씨—끔찍한 세상이지, 제 자식두 제 맘대루 못 기르구…

월매—(무대 밖에서) 금녀야!

금녀—(머뭇거리며 대답을 못 한다.)

월매—(황황히 등장하며) 이 년 왜 찾아두 대답을 안 하냐?

리씨—(조용하면서도 단호히) 이 앤 더는 당신네 집에 보낼 수 없수다.

월매—흥, 뭐라구? 이게 뭘 등대구 배짱이야(금녀에게) 이년 냉큼 못 갈가?

리씨—못 데려가.

월매—왜?

리씨—3년 동안 빚은 다 갚았다.

월매—뭣이? 그래 그 새 먹구 입은 건 어쩌구(금녀에게) 이 년 금반지까지 훔치구.

금녀—뭐요?

월매—요 깜찍한 년 봐 그 장롱 속에 넣어 둔 것 말이다.

금녀—아니 정말 생사람 잡겠네, 누가 그 따위 소리를 해요?

월매—잔나발 불지 말구 어서 내놔, 네 년 열 주구두 못 산다.

리씨—(월매에게 한발 다가 서며) 내 딸이 금반지를 훔치다니? 3년 간 죽도록 부려먹구 이게 무슨 생떼질이냐?

월매—응 모녀 간에 미리 다 짜 놨구나(자기 집을 향해)여보! 여보! 뭘해요?

곽가—(씨근거리며 등장)

월매—아니, 이 년들이 금반지를 훔치구두 못 가겠다는 구려.

곽가—아니 못 가겠다구? 요 망할년, 가자.

금녀—안 갈래요.

곽가—이 년 이래두 못 갈테냐? (잡아끈다. 월매 뒤에서 민다. 금녀 몸을 빼려고 발을 버틴다)

리씨—이놈들아, 놓아라, 내 딸을 못 끌어 간다. (달려 든다.)

금녀—어머니! (금녀 끌려 나간다)

곽가—(소리) 요년 손을 물어? 메리! 메리! (개의 으르릉대는 소리) 저년 물어라!

△ 금녀 신음 소리

창덕—(후닥닥 뛰쳐 나와 낫을 들고 따라 나간다)

△ 지주의 비명 소리

△ 몇몇 마을 사람들 개한테 물린 금녀를 업고 등장, 창덕이도 씨근덕거리며 들어 온다.

리씨—급살을 맞구 뒈질 놈들, 애 금녀야, 금녀야! 정신 차려라.

금녀—어머니 괜찮아요.

△ 이 때 무대 밖에서 《불이야》소리.

△ 이윽고 곽 지주 집 토담으로 불'길이 타오른다. 격노한 마을 사람들이 불을 지른 것이다. 마을 청년 하나가 토담 우에 버쩍 올라 선다.

마을 청년—(모여선 사람들을 향해) 여러 분 지금 저기 공장 거리에서는 로동자들이 자본가들을 반대하며 련일 파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기회에 곽 지주의 쌀 창고를 부시고 그 놈의 토지 문서를 모조리 불살라 버립시다.

△ 일동 호응 한다. 마을 사람들 지주 집 창고로 밀려 간다.

△ 불'길이 충천한다.

리씨—(금녀를 부축하고) 봐라 곽가놈의 집이 불 속에 잠겼다.

△ 모두 통쾌한 마음으로 불'길을 바라 본다.
창고 부시는 소리, 환호성 소리 요란히 울린다.

—막—

조선 인민군 중사 리 주천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청 출판사 인쇄소 동평양 인쇄 공장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전화(3858, 8385)
1963년 8월 11일 인쇄 1963년 8월 21일 발행
ㄱ—330448 (값 35 전)

새로 나오는 책

만경 창파를 헤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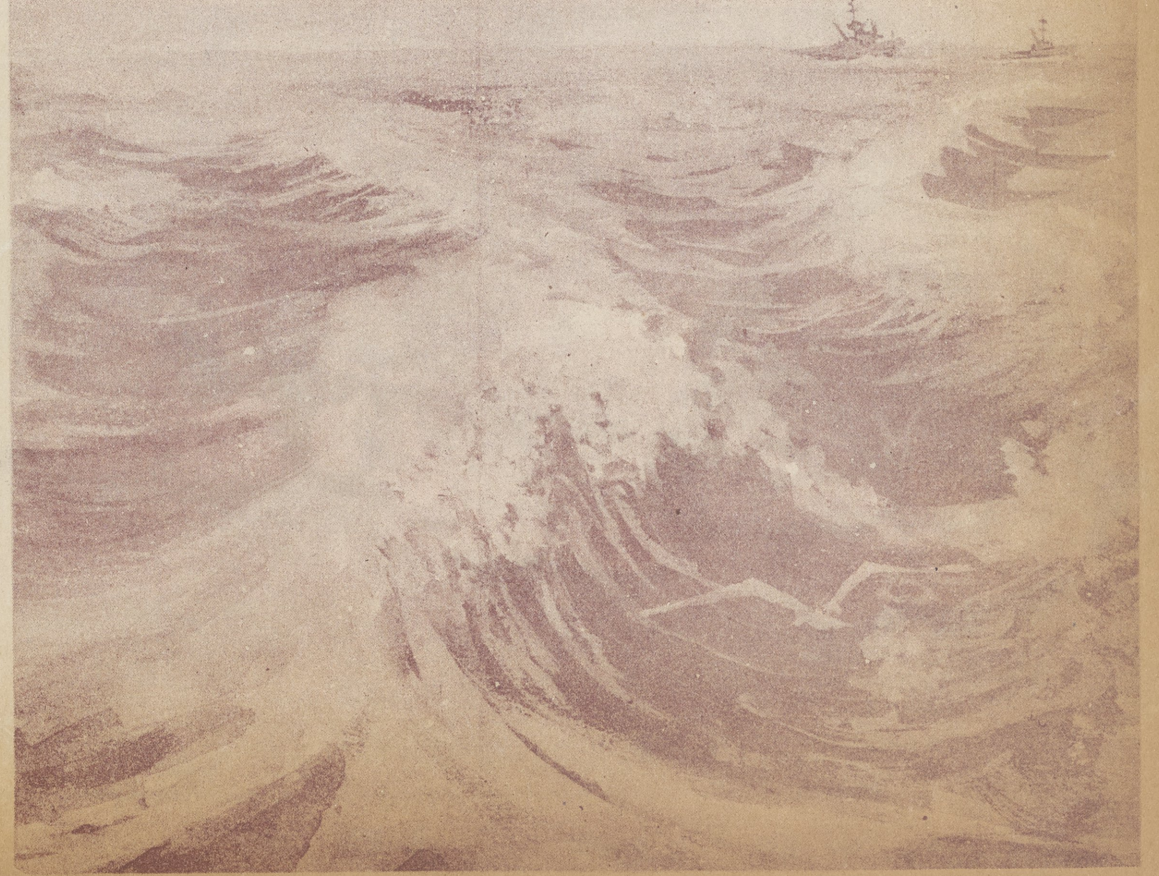
이 책에는 당과 수령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들고 해양국의 청년답게 바다를 정복하는 우리 시대의 젊은 어로 전사들에 대한 실화들이 수록 되여있다.

《먼 해구에서》는 당의 수산 정책을 받들고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4 천리 북방 공해에로 배를 몰아 원양 어장을 개척하여 공해에 공화국기 휘날리며 련일 만선으로 이름 떨친 우리 시대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천리 만리를 날아도 진할 줄 모르는 《바다의 젊은 갈매기》들이 개선가 드높이 포구로 돌아오는 그들의 혁명적 락천성을 읽게 된다.

《당의 딸—서해의 처녀 선장》, 《고래 잡이 명수》, 《양어 기수》, 《심해의 개척자》 들에서도 당과 수령의 부름 따라 오직 혁명 과업 수행을 위해 난관을 대담하게 극복하며 서로 믿고 도와주며 어려운 고비에는 서슴없이 남보다 먼저 자신이 뛰여 들어 온갖 희생성과 창의 창발성을 발휘하는 그들의 높은 정신 세계와 혁명적 동지애를 본받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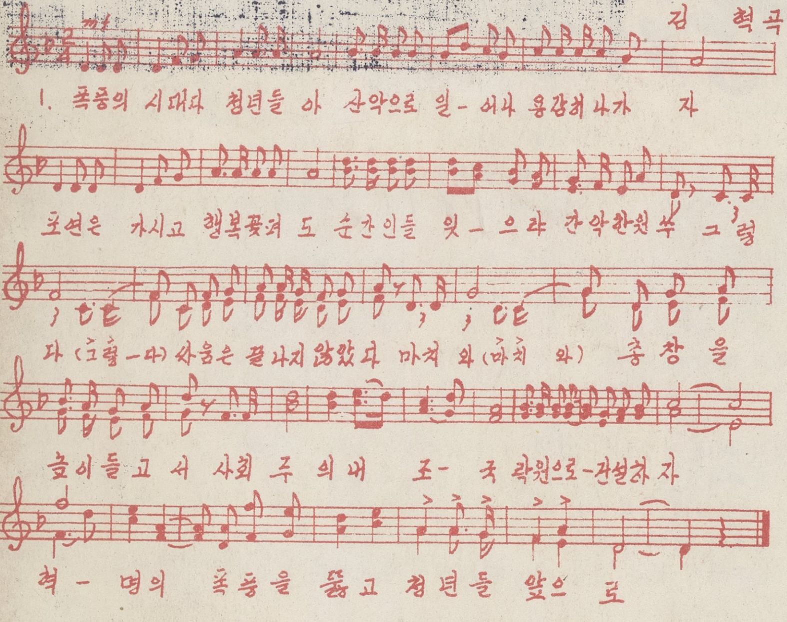
당과 수령의 주위에 강철로 뭉쳐진 혁명 전사들의 감동적인 매 이야기들에서 그들이 발휘한 무비의 영웅성과 불요 불굴의 투쟁 정신은 우리들 청년들의 생활의 구감으로 훌륭한 교양 자료로 될 것이다.

이 책은 근일 민청 출판사에서 발행 한다.



폭풍을 뚫고 청년들아 앞으로!

김 학연 시
김 혁 곡



2. 혁명의 시대다 청년들아 항일의 정신이 심장에 불탄
우리의 힘으로 이땅을 다져 굳세게 지키자 혁명의 기
그렇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마치와 총창을 높이들
로동당의 붉은 기'발 하늘 높이 휘날리며
혁명의 폭풍을 뚫고 청년들 앞으로

3. 미래가 보인다 청년들아 조국의 행복도 젊은 희망도
혁명의 길에서 붉게 피거니 무엇을 아끼랴 우리의 청
그렇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마치와 총창을 높이들
수령의 부름따라 공산주의 향하여
혁명의 폭풍을 뚫고 청년들 앞으로



《사 랑》 수채화 리 동희 그림